

An aerial photograph of Seoul, South Korea, showing a dense urban landscape with numerous buildings and a mountain range in the background. The image is overlaid with a white rectangular box containing text and several colorful, stylized graphic elements. A red and yellow graphic element points downwards from the top right towards the text box. A blue graphic element points upwards from the bottom left towards the text box. A green graphic element points upwards from the bottom right towards the text box.

FESTIVAL
BOOM

SEOUL
2012

3 22-4 18

페스티벌 봄은 현대무용, 연극, 미술, 음악, 영화, 퍼포먼스 등 현대 예술 전 장르 간의 상호 교류를 근간으로 하는 실험적 창작 예술제로서 매년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다원 예술축제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페스티벌 봄 2012'는 국내외 22개의 다원예술 작품들로 28일 동안 서울에서 펼쳐진다. 페스티벌 봄은 '새로운 시도와 형식'을 발굴하고 제작하며 전파하는 역동적인 현대예술제로서, 한국을 21세기 현대 예술의 중심점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Festival Bo:m is an annual international festival of interdisciplinary arts which presents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As an experimental art festival, Festival Bo:m bases itself on the creative interactions between all genres of contemporary art such as contemporary dance, theatre, fine art, music, film and performance. Festival Bo:m 2012, the 6th edition of Festival Bo:m, will present 22 domestic and international works of most innovative and avant-garde interdisciplinary art for 28 days in various venues in Seoul. As Korea's leading festival in contemporary art which pioneers, produces and promotes 'new frontiers and forms', Festival Bo:m aims to play a critical role in Korea as a dynamic platform of contemporary art of the 21st century.

매년 봄 신선한 예술의 향기로 서울을 수놓아 온 페스티벌 봄의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페스티벌 봄은 올해도 문화도시 서울에서 28일간 국제 현대예술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전 세계 아티스트들과 더불어 독창적인 형식으로 공연예술과 시각예술계의 다양성을 확립해 온 국내 아티스트들을 초청하여 예술의 향연을 펼칩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초청된 22개의 다원예술작품이 국립극단,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극장, 두산아트센터, 그리고 장소특정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용산역 등 서울 곳곳에서 관객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페스티벌 봄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과 대중 사이의 거리를 넘어서 관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감으로써, 가장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이 서울 시민들과 만나는 기쁘고 값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가진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페스티벌 봄은 그동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예술형식들이 교류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공연예술의 새 지평을 열며 서울의 문화예술 환경을 운택하게 일구는 데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융화의 정신과 실험정신으로 가득 찬 현대예술의 진수를 많은 사람들이 즐기게 되길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벌써 6회를 맞는 페스티벌 봄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페스티벌 봄과 같이 실험적인 예술작품들을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소개하고 아시아의 공연예술허브로 성장해 가는 의미 있는 축제를 매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3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펼쳐질 2012년 페스티벌 봄은 작년 아깝게 한국을 찾지 못했던 베를린 민중극단의 르네 폴레슈의 작품을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세계 각국의 작품들을 초청합니다.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연극, 무용, 퍼포먼스, 영화, 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현대예술의 최전선에서 기존의 예술형식을 뛰어넘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시선과 형식을 제시하는 여러 국내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제작, 공연함으로써 관객 여러분께 보다 다채롭고 창조적인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명실공히 서울과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다원예술축제로 자리잡은 페스티벌 봄이 앞으로도 혁신적인 정체성과 신념을 바탕으로 꾸준히 진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페스티벌 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오광수

1 르네 폴레슈	현혹의 사회적 맥락이여,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6
2 박찬경	갈림길 + 아시아 고딕	8
3 재커리 오버젠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붓다	10
4 대니얼 리너헨	그것이 다가 아니다 + 셋을 위한 몽타주	12
5 이영준,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뮤즈S	라면 앙상블	14
6 마리아노 펜소티	가끔은 널 볼 수 있는 것 같아	16
7 제롬 벨	세드릭 앙드리에외	18
8 서영란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0
9 네이처 시어터 오브 오클라호마	삶과 시절: 에피소드 1	22
10 남화연	이태리의 정원	24
11 우메다 테쓰야	웨이팅 룸	26
12 김지선	웰-스탈링	28
13 케렌 시터	쇼 리얼 드라마	30
14 케렌 시터	텍스트 테스트—4개의 비디오	32
15 현시원	천수마트 2층	34
16 침↑폼	슈퍼 랫에서 리얼 타임즈까지	36
17 네지 피진	모티베이션 대행	38
18 홍성민	더 무비	40
19 쉬쉬팝	유서	42
20 장현준	극장발생	44
21 톱크 탱크	구리거울을 통해, 어렴풋이	46
22 오마르 아부 사다	카메라를 봐 주시겠습니까?	48
	부대행사	50
	크레딧	52
	티켓 정보	53
	공연 일정 / 장소	54

1 René Pollesch	Here's Looking at You, Social Context of Delusion!	6
2 Park Chan-kyong	Crossroads + Asian Gothic	8
3 Zachary Oberzan	Flooding with Love for the Kid	10
4 Daniel Linehan	Not About Everything + Montage for Three	12
5 Young-June Lee, Nayoungim & Gregory Maass, MuseS	Ramen Ensemble	14
6 Mariano Pensotti	Sometimes I think, I can see you	16
7 Jérôme Bel	Cédric Andrieux	18
8 Yeong-Ran Suh	I Confess My Faith	20
9 Nature Theater of Oklahoma	Life and Times—Episode 1	22
10 Hwayeon Nam	A Garden in Italy	24
11 Tetsuya Umeda	waiting room	26
12 Ji-Sun Kim	Well-stealing	28
13 Keren Cytter	Show Real Drama	30
14 Keren Cytter	Testing Texts—Four Videos	32
15 Seewon Hyun	Cheonsoo Mart 2nd Floor	34
16 Chim ↑ Pom	From Super Rat to Real Times	36
17 Pijin Neji	the acting motivation	38
18 Sungmin Hong	The Movie	40
19 She She Pop	Testament	42
20 Hyun-joon Chang	The Occurrence of a Theater	44
21 Tink Tank	Through the Copper Looking Glass, Darkly	46
22 Omar Abu Saada	Can you please look at the camera?	48
	Events	50
	Credits	52
	Tickets	53
	Schedule / Venues	54

13 Keren Cytter	Show Real Drama	30
14 Keren Cytter	Testing Texts—Four Videos	32
15 Seewon Hyun	Cheonsoo Mart 2nd Floor	34
16 Chim ↑ Pom	From Super Rat to Real Times	36
17 Pijin Neji	the acting motivation	38
18 Sungmin Hong	The Movie	40
19 She She Pop	Testament	42
20 Hyun-joon Chang	The Occurrence of a Theater	44
21 Tink Tank	Through the Copper Looking Glass, Darkly	46
22 Omar Abu Saada	Can you please look at the camera?	48
	Events	50
	Credits	52
	Tickets	53
	Schedule / Venues	54

현혹의 사회적 맥락이여,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3.22 [목] 8pm / 3.23 [금] 8pm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90분]

2002년 독일 최고의 연극인으로 선정된 연출가 르네 폴레슈의 열정적인 텍스트를 독일 최고의 배우로 평가받는 파비안 힌리히스(Fabian Hinrichs)가 무대화한다. 무대를 좁게 만드는 힌리히스의 정열과 지혜, 괴성과 케번은 강렬한 에너지로 관객을 휘감으며 재현을 넘어서는 독특한 연극 언어를 설파한다. 이 개성 넘치는 광대-강연자를 통해 경제적 현실에 대한 해안은 연극 형식에 대한 즉물적인 성찰로 이어진다. 변혁의 가능성은 무대에서 시작한다.

“국제금융위기의 주체들은 무얼 하는가? 금융시장의 위기는 짜증스런 혼란을 야기했는데 나의 몸은 아직도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니! 금융위기는 정체성의 오해가 만든 혼란스런 코미디다. 하지만 무엇을 오해했다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본주의 경제의 원동력은 자기 지시적인 소통에 근거를 둔다. 가격은 상품이 아니라 다른 가격을 지시하며, 이것은 결국 세계의 재현이 아니라 일종의 탈-재현이 된다. 활동성과 금융주의, 실제 가치와 허구적 가치의 차이는 무용해진다. 주체의 안에서 비극은 믿음과 현실, 두 극단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 둘은 동시에 우리를 재앙으로 끌고 간다.” [르네 폴레슈]

Here's Looking at You,
Social Context of Delusion!

3.22 [Thu] 8pm / 3.23 [Fri] 8pm

Daehangno Arts Theater, Main Hall [90 min]

The crisis in the financial markets has triggered irrational turbulence and my body is still not aware of the disaster! In fact, there is nothing but passiveness or asceticism. The financial crisis is a turbulent comedy of mistaken identity. But what has been mistaken then? There is nothing there! The engine of the capitalist economy is based on self-referring communication. Prices do not refer to goods, but to other prices, which ultimately leads to de-presentation of the world. [René Pollesch]

Production of Volksbühne am
Rosa-Luxemburg-Platz, Berlin / Germany

Ich Schau Dir in die Augen, gesellschaftlicher
Verblendungszusammenhang!
von René Pollesch

With(Mit): Fabian Hinrichs
Text and Director (Text und Regie):
René Pollesch
Stage and Costumes (Bühne und Kostüme):
Bert Neumann
Light-Design (Licht): Frank Novak
Dramaturgie (Dramaturgie): Aenne Quiñones
Premiere, Berlin, 13 January 2010

Translation: Suok Ham
Subtitle Assistant: Minjung Oh
Photo © Thomas Aurin

2 박찬경

갈림길 + 아시아 고딕

3.24 [토] 3pm / 3.25 [일] 1p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80분]

아시아 고딕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예술의 형태로 주창하는 박찬경은 인간문화재 나라만신 김금화의 삶을 놓치지 않는다. 이 작업은 김금화의 삶을 다루는 판타지 다큐멘터리 '만신'의 진오귀굿 편이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잇는 사람이자 한국 근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김금화의 삶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기묘하게 연결한다.

극 다큐 혼합 작품 '갈림길'은 다큐멘터리 영상과 더불어 김금화 만신이 한국전쟁 중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재연 드라마로 보여준다. 영화는 남북한군 모두에게 여러 차례 총살 위협을 당해야 했던 김금화 만신의 사연을 경기도 적군묘지에서 펼쳐지는 진오귀굿과 결합한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적군묘지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북한군과 중국군의 유해가 묻혀 있는 무덤이다.

'갈림길'은 한 많은 묘지에서의 진오귀굿을 소설가 황석영 인터뷰, 인천상륙작전 영상 등과 함께 담아내며 시간과 공간, 실재와 판타지의 경계를 중첩시킨다. 합리적인 근대성의 지배를 뛰어넘는 신화적이고 본능적인 힘으로서의 아시아 고딕 개념을 탐구하는 박찬경의 렉처가 함께 이어진다.

본 작품은 '20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후원작 프리뷰 작품'입니다.

2 Park Chan-kyong

Crossroads + Asian Gothic

3.24 [Sat] 3pm / 3.25 [Sun] 1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80min]

Park Chan-kyong who asserts an interesting concept of Asian Gothic through his artistic method cannot miss the life of Keum-hwa Kim the 'mansin', or the national shaman. This work is the jinogui-gut(shamanistic rituals to console the dead) version of *Mansin*, a fantasy documentary based on Kim's life. The life of a woman who bridges the border of this life and afterlife and stands in the middle of Korean modern history bizarrely links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of Korea. The video is followed by his lecture on Asian Gothic as a concept of mythical and fundamental force which transcends the regime of modernity.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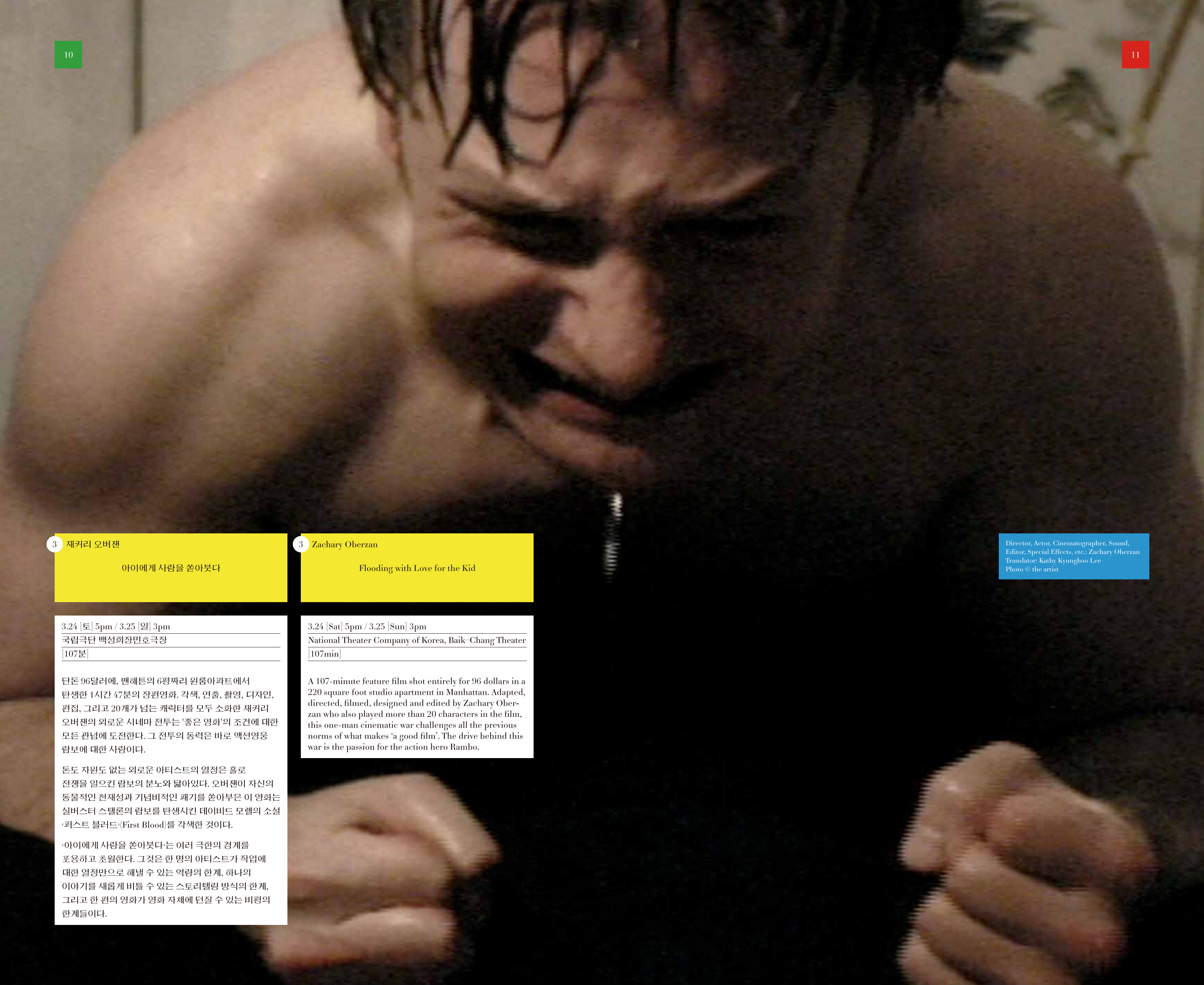
Keum-hwa Kim: Hyunkyung Ryu
Mr. Park: Myunghang Lee
Park's mother-in-law: Yeonsook Shin
Park's wife: Saebuk Kim
Park's sister-in-law: Hyeoyoung Ryu
CID General: Joongki Kim
Army surgeon: Hwaryong Lee
North/South Korean soldier: Woosik Jung
Musician(Hourglass drum): Taejin Kim
Musician(Gong): Hyuna Jang
Keum-hwa as a girl: Jilyeon Kim
Dead man: Jungho Lee
With appearance of:
Keum-hwa Kim, Suk-young Hwang

Staff

Directed by: Park Chan-kyong
Written by: Park Chan-kyong, Han Sunhee
Produced by: Han Sunhee,
Kim Min-kyung (mk)
Director of Photography: Yunejeong Jee
Lighting: Myungsoo Hong
Sound Recordist: Hyunsang Kim
Art Director: Gyeongin Baek
Costume Supervisor: Kyunghee Jung
Costumes: Soyoung Park
Hair and Makeup: Hyunjung Kim
Music by: Taewon Lee
VFX Supervisor: Jeonhyeong Lee
1st Assistant Director: Sungwon Choi
Script Supervisor: Taelwa Um
Production Assistants: Jinyoung Choi,
Jungho Lee
Storyboard: Taelwa Um
Supported by: Office for Hub City of Asian
Culture in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is is a preview performance of the project supported by Asian Arts Theatre.

Photo © Initiation *gut* of the mansin Keum-hwa Kim, courtesy of Keumhwadang



3 재커리 오버젠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붓다

3.24 [토] 5pm / 3.25 [일] 3p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107분]

단돈 96달러에, 맨해튼의 6평짜리 원룸아파트에서 탄생한 1시간 47분의 장편영화. 각색, 연출, 촬영, 디자인, 편집, 그리고 20개가 넘는 캐릭터를 모두 소화한 재커리 오버젠의 외로운 시네마 전투는 '좋은 영화'의 조건에 대한 모든 관념에 도전한다. 그 전투의 동력은 바로 액션영웅 람보에 대한 사랑이다.

돈도 자원도 없는 외로운 아티스트의 열정은 홀로 전쟁을 일으킨 람보의 분노와 닮아있다. 오버젠이 자신의 동물적인 천재성과 기념비적인 패기를 쏟아부은 이 영화는 실버스터 스탠론의 람보를 탄생시킨 데이비드 모렐의 소설 '퍼스트 블러드'(First Blood)를 각색한 것이다.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붓다는 여러 극한의 경계를 포용하고 초월한다. 그것은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작업에 대한 열정만으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의 한계, 하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비출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한계, 그리고 한 편의 영화가 영화 자체에 던질 수 있는 비평의 한계들이다.

3 Zachary Oberzan
Flooding with Love for the Kid

3.24 [Sat] 5pm / 3.25 [Sun] 3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107min]

A 107-minute feature film shot entirely for 96 dollars in a 220 square foot studio apartment in Manhattan. Adapted, directed, filmed, designed and edited by Zachary Oberzan who also played more than 20 characters in the film, this one-man cinematic war challenges all the previous norms of what makes 'a good film'. The drive behind this war is the passion for the action hero Rambo.

Director, Actor, Cinematographer, Sound, Editor, Special Effects, etc.: Zachary Oberzan
Translator: Kathy Kyunghoo Lee
Photo © the artist

4 대니얼 리너헨
 그것이 다가 아니다 + 셋을 위한 몽타주

3.27 [화] 8pm / 3.28 [수] 9pm
 국립극단 소극장 판
 [70분, 인터미션 포함]

“내게 아무런 신체에 관한 것이고, 신체는 리듬, 모양, 디자인, 향기, 맛, 성, 정치, 감정, 사고, 목소리, 표현, 역사, 현재, 미래를 포함한다.” [대니얼 리너헨]

P.A.R.T.S.를 졸업하자마자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신인 안무가이자 무용수인 대니얼 리너헨의 작품은 단순한 규칙의 게임처럼 시작하여 순수 움직임에 시공간적 맥락을 부여하는 정교한 장치를 구축하는 섬세한 과정으로 이어진다.

듀엣 작품 <셋을 위한 몽타주>는 우연히 발견된 사진들(found photographs)로부터 고안된 일종의 ‘이미지-안무(image-choreography)’로, 두 명의 무용수는 부재하는 것에 실재감을 부여하는 부조리하고 불가능한 목적을 실행한다. 살아있고, 움직이고, 현존하는 신체들과 기계적이고, 고정적이고, 재생산된 신체들의 두 형식은 서로 대면하다가 서로의 역할을 교환하기 시작한다. 무용수들이 관객들의 기억을 꼬집어내게 됨에 따라 정적인 이미지들은 자신만의 삶을 얻기 시작한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하나의 간단하고도 유아적인 동작을 기반으로 하는 솔로 작품이다. 제자리에서 도는 것이다. 단조로운 구조 속에서 리너헨은 일련의 변주, 가속, 세밀한 이동을 보여주며 재미있고도 복잡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는 회전을 끊임없이 지속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관객들을 상대하는 등의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과제들이 따라붙는 매우 힘든 정신적, 신체적 과정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현기증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지속적인 움직임의 체계 속에서도 의식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사고와 성찰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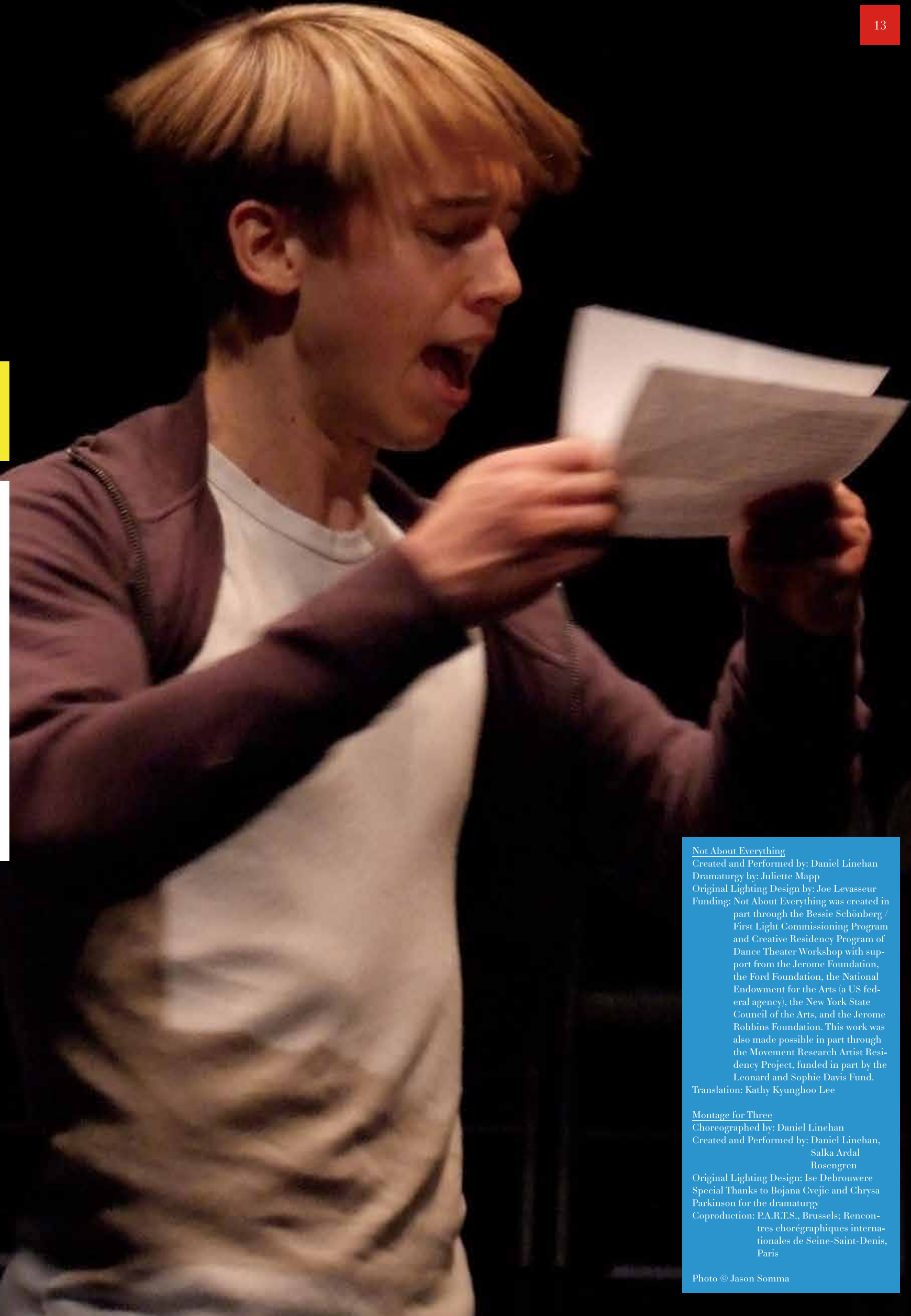
4 Daniel Linehan
 Not About Everything + Montage for Three

3.27 [Tue] 8pm / 3.28 [Wed] 9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Creative Space Pan
 [70min, with intermission]

‘For me, choreography is about the body, and the body includes rhythm, shape, design, scent, taste, sexuality, politics, emotions, thoughts, voice, expression, history, the present, the future’. [Daniel Linehan]

The works of Daniel Linehan, an emerging dancer and choreographer winning international attention since his graduation from P.A.R.T.S., begin like a game with simple rules and move on to a delicate process which establishes an intricate device that provide time-space context to pure movements.

His duet *Montage for Three* is a certain ‘image-choreography’ devised from found photographs, where two dancers try to achieve an absurd and impossible aim of giving presence to what is absent. *Not About Everything* is a solo based on one simple and childlike movement; Linehan creates an interesting yet complicated flow with a series of variations, acceleration, and subtle shifts.



Not About Everything
 Created and Performed by: Daniel Linehan
 Dramaturgy by: Juliette Mapp
 Original Lighting Design by: Joe Levasseur
 Funding: Not About Everything was created in part through the Bessie Schönberg / First Light Commissioning Program and Creative Residency Program of Dance Theater Workshop with support from the Jerome Foundation, the Ford Foundation,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a US federal agency), the New York State Council of the Arts, and the Jerome Robbins Foundation. This work was also made possible in part through the Movement Research Artist Residency Project, funded in part by the Leonard and Sophie Davis Fund.
 Translation: Kathy Kyunghoo Lee

Montage for Three
 Choreographed by: Daniel Linehan
 Created and Performed by: Daniel Linehan, Salka Ardal, Rosengren
 Original Lighting Design: Ise Debrouwere
 Special Thanks to Bojana Cvejic and Chrysa Parkinson for the dramaturgy
 Coproduction: P.A.R.T.S., Brussels;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Saint-Denis, Paris

Photo © Jason Somma

라면 앙상블

3.28 [수] 7pm / 3.29 [목] 8p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80분]

‘라면 앙상블’은 ‘라면’이라는 소재와 과학 퍼포먼스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자-예술가의 협업 과정을 통해서 과학-일상-예술 사이의 경계에 도전하고 관객을 제3의 지식/공연/경험과 조우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라면 앙상블’은 라면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 간의 ‘앙상블’ 그리고 라면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경험, 지식들 간의 ‘앙상블’을 구성한다.

- A. 비평가는 라면이 대량으로 소비되는 장면들에 집중하는데, 광고 속 이미지와 상반된 라면이 요리되고 소비되는 현장이다. 건설 노동 현장, 혹은 군대와 같은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남성 집단에 의해 라면은 ‘남성적인 음식(masculine food)’으로 소비된다. 극단적 남성성으로 대변되는 과거의 라면이 가장 맛있었던 라면으로 기억되는 이유와 기제는 무엇인가?
- B. 세 명의 과학자들은 남성 집단에서 흔히 발견되는 집단 라면 섭취 행위를 뇌과학, 생화학, 행동생태학적으로 분석한다.

라면 과학은 라면을 맛있게 먹었던 당신의 기억, 당신의 경험과 어떠한 ‘앙상블’을 만들어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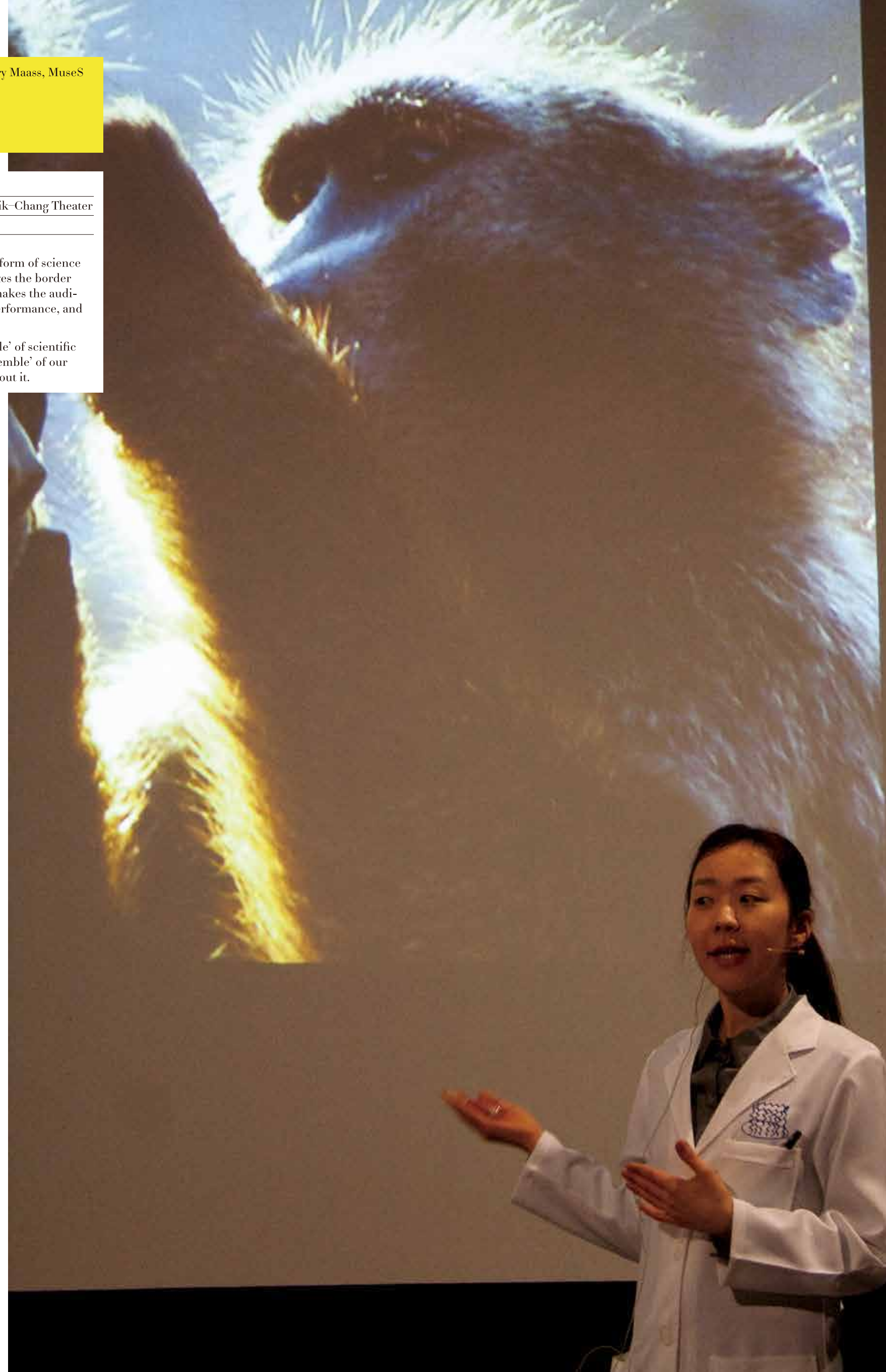
Ramen Ensemble

3.28 [Wed] 7pm / 3.29 [Thu] 8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80min]

Through the subject of ‘ramen’ and the form of science performance, *Ramen Ensemble* challenges the border between science-everyday life-art and makes the audience encounter the third knowledge, performance, and experience.

Ramen Ensemble organizes the ‘ensemble’ of scientific knowledge on ramen as well as the ‘ensemble’ of our memory, experience, and knowledge about it.

Production: MuseS, Nayoungim,
Young-June Lee
Direction: Nayoungim, Young-June Lee
Set: Nayoungim, Gregory Maass
Script: Young-June Lee, So Yeon Leem,
Yeonwha Kim, Hawon Chang, Hayeon
Kim, Haejun Moon
Actors: Dongtak Yang, Goeum Park, Yunsil
Chang
Graphic Design: Donghyeok Shin
Photography: Gregory Maass, Heekyung Ryu
Video: Sooyeon Kang
Coordinator: Hayeon Kim
Supported by: Gyeonggi Creation Center,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Photo © Gregory Maass



가끔은 널 볼 수 있는 것 같아

3.29-30 [목-금] 4pm

3.31-4.1 [토-일] 12pm

4.2 [월] 4pm

코레일 용산역 대합실 [120분]

“나는 어떤 때엔 너를 보고 또 어떤 때엔 너를 볼 수 있는 것 같다.”

때로는 우리의 기억과 상상이 우리가 보는 것을 만들어낸다. 관찰은 대상뿐 아니라 관찰자도 변화시킨다. 우리는 이방인의 무리 속에서 항상 낯익은 얼굴들을 본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 장소에서 이미 보았던 사람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간 무의식적으로 찾아왔던 사람인가?

마리아노 펜소티의 장소 특정 퍼포먼스는 현실이 허구로, 그리고 허구가 삶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인식과 익명성에 대한 사색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소설가 김연수, 시인 강정, 기자 하어영, 싱어송라이터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가 즉흥적 작가로 참여하는 한국 버전에서, 관객 각자는 기억과 상상이 맞물리는 접점에서 장소를 새롭게 해독하게 된다.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하는 공공장소는 상상과 기억이 만나고 타자와 주체의 경계가 재편성되는 유기적인 장으로 각색된다. 예측할 수 없는 즉흥적 과정을 통해.

Sometimes I think, I can see you

3.29-30 [Thu-Fri] 4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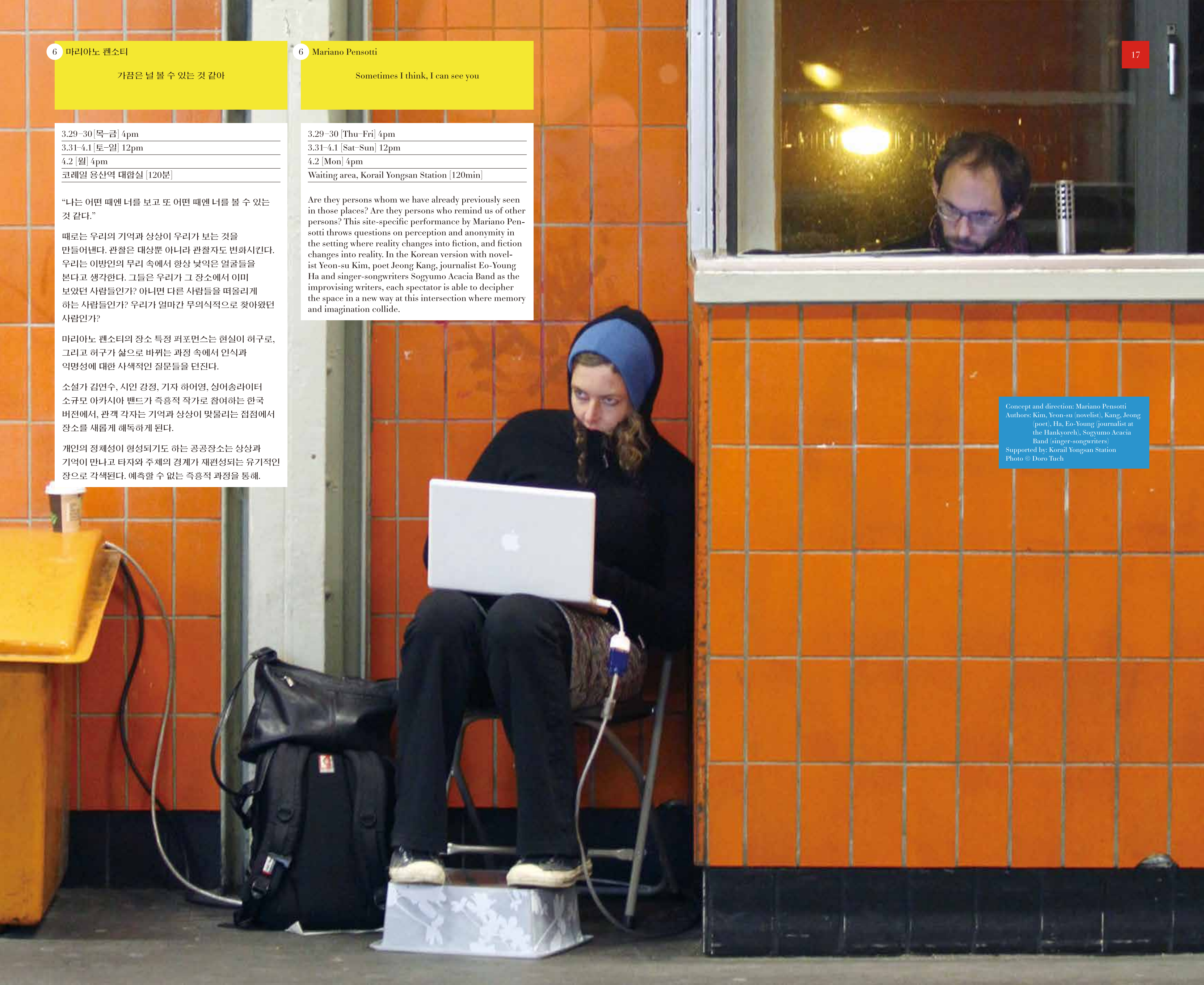
3.31-4.1 [Sat-Sun] 12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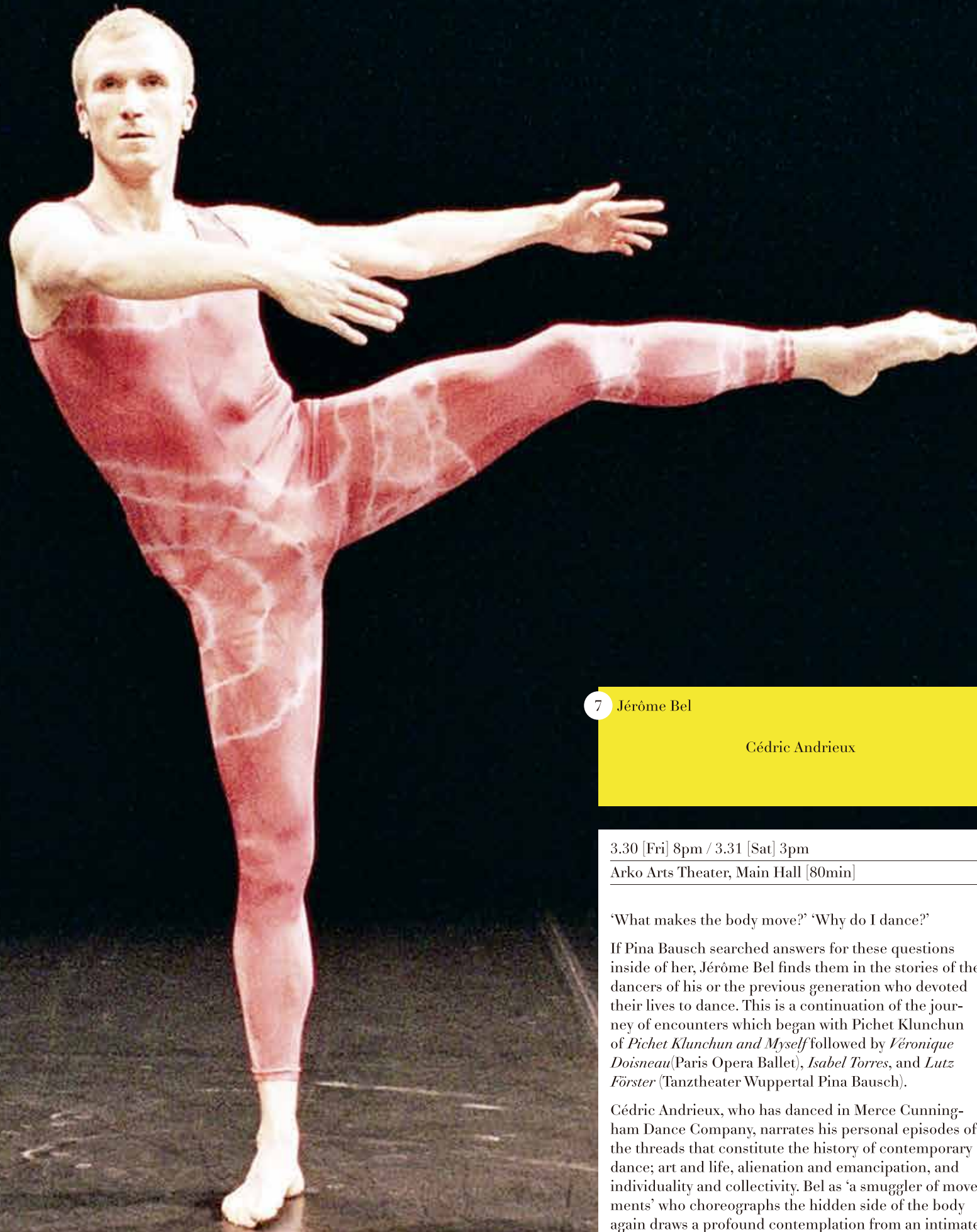
4.2 [Mon] 4pm

Waiting area, Korail Yongsan Station [120min]

Are they persons whom we have already previously seen in those places? Are they persons who remind us of other persons? This site-specific performance by Mariano Pensotti throws questions on perception and anonymity in the setting where reality changes into fiction, and fiction changes into reality. In the Korean version with novelist Yeon-su Kim, poet Jeong Kang, journalist Eo-Young Ha and singer-songwriters Sogyumo Acacia Band as the improvising writers, each spectator is able to decipher the space in a new way at this intersection where memory and imagination collide.

Concept and direction: Mariano Pensotti
Authors: Kim, Yeon-su (novelist), Kang, Jeong (poet), Ha, Eo-Young (journalist at the Hankyoreh), Sogyumo Acacia Band (singer-songwriters)
Supported by: Korail Yongsan Station
Photo © Doru Tuch





7 제롬 벨
세드릭 앙드리에

3.30 [금] 8pm / 3.31 [토] 3pm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80분]

“무엇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가?” “춤을 추는 이유는 무엇인가?”
피나 바우쉬가 이 질문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았다면, 제롬 벨은 무용에 인생을 바쳐온 동료나 선배 무용수들의 인생 이야기에서 찾는다. PK와 나의 피켓 클룬천으로부터 시작되어, 베로니끄 두아노(파리 오페라 발레단), 이자벨 토레스(리우 데 자네이루 시립극장 발레단), 루츠 뢰르스터(피나 바우쉬 무용단)로 이어진 만남의 여정은 계속된다.
머스 커닝햄 무용단에 몸담았던 세드릭 앙드리에의 예술과 삶, 소외와 자유, 개인과 집단 등 현대무용의 역사를 이루어 온 함수들을 사담으로 풀어낸다. 이는 곧 역사 속에서 개인의 위치를 규정하는 미시적 작업이자, 무용의 장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의 단초가 된다. 벨에 있어서 ‘무용’의 근본은 기억과 장치다. 몸의 이면을 안무하는 ‘움직임의 밀수꾼’ 벨은 이번에도 내밀한 이야기로부터 냉철한 성찰을, 스스로에 대한 진솔함으로부터 감동을 끌어낸다.

7 Jérôme Bel
Cédric Andrieux

3.30 [Fri] 8pm / 3.31 [Sat] 3pm
Arko Arts Theater, Main Hall [80min]

“What makes the body move?” “Why do I dance?”
If Pina Bausch searched answers for these questions inside of her, Jérôme Bel finds them in the stories of the dancers of his or the previous generation who devoted their lives to dance. This is a continuation of the journey of encounters which began with Pichet Klunchun of *Pichet Klunchun and Myself* followed by *Véronique Doisneau* (Paris Opera Ballet), *Isabel Torres*, and *Lutz Förster*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Cédric Andrieux, who has danced in Merce Cunningham Dance Company, narrates his personal episodes of the threads that constitute the history of contemporary dance; art and life, alienation and emancipation, and individuality and collectivity. Bel as ‘a smuggler of movements’ who choreographs the hidden side of the body again draws a profound contemplation from an intimate story and moves the audience with the sincerity towards the self.

Cédric Andrieux (2009)
Concept: Jérôme Bel
By and with: Cédric Andrieux
With extracts of pieces by: Trisha Brown (Newark), Merce Cunningham (Biped, Suite for 5), Philippe Tréhet (Nuit Fragile), Jérôme Bel (The show must go on)
Coaches: Jeanne Steele (Merce Cunningham) and Lance Gries (Trisha Brown)
Coproduction: Théâtre de la Ville (Paris), Festival d'Automne (Paris), R.B. Jérôme Bel (Paris)
Supported by: Centre National de la Danse (Paris), La Ménagerie de Verre (Paris), Baryshnikov Arts Center (New York)
Thanks to: Thérèse Barbanel, Trevor Carlson and Yorgos Loukos
Duration: 80 minutes
Language: English
Production manager: Sandro Grando
Subsidies: R.B. Jérôme Bel is supported by the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Ile-de-France, French Ministry for Culture and Communication, and by Cultures France, Frenc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for its international tours
Websites: www.jeromebel.fr, catalogueraisonne-jeromebel.com
Translation: Kathy Kyunghoo Lee
Photo © Herman Sorgeloos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3.31 [토] 7pm / 4.1 [일] 3pm

국립극단 소극장 관

[60분]

여전히 마을굿을 믿고 이를 준비하는 동네 사람들이 스스로의 기억을 더듬어 전해주는 옛날이야기에는 귀신과 도깨비, 한국전쟁과 개발시기가 뒤섞여 있다. 미신과 원시종교 심지어 기독교 그 사이에 선 우리나라 무속마냥, 그들의 이야기도 그리고 서영란의 신앙과 몸짓도 오락가락한다.

태초에 춤은 어떻게 내용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

춤 공연의 원형을 담은 제의에 대한 탐구로서 서영란은 전문화된 무당 위주의 의식보다 마을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비공식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의식을 보기 위해, 또한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유효하게 운동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도시 안에 남아있는 마을굿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속신앙이 행위와 연결된 방식을 역추적하고 이는 다시 춤의 형태와 내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이제는 가상적 현실이자 박제된 노스텔지어가 된 마을굿을 안무화하는 서영란의 움직임은 형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를 이어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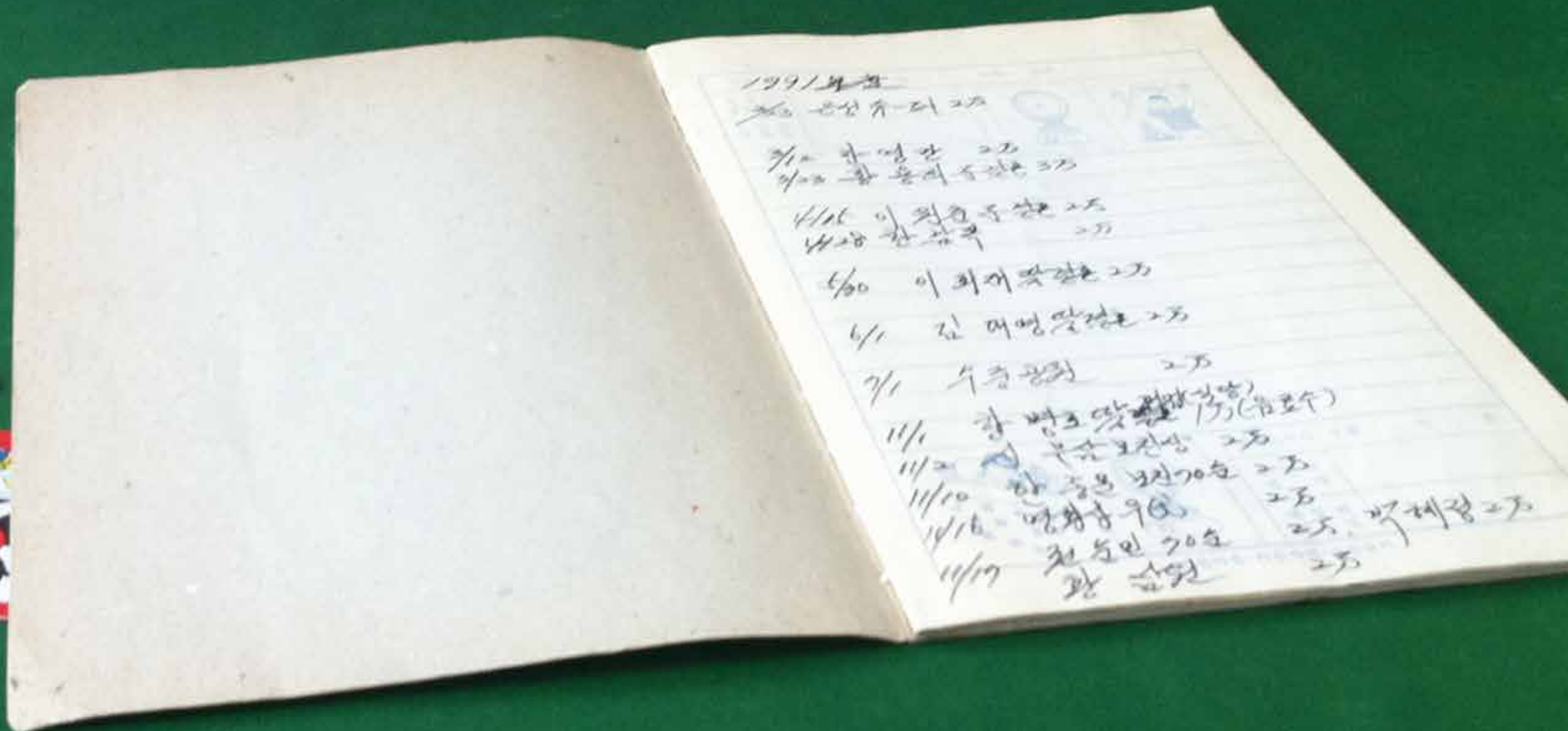
I Confess My Faith

3.31 [Sat] 7pm / 4.1 [Sun] 3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Creative Space Pan

[60min]

In the memories of residents who still believe in and prepare gut(shamanistic rituals) in their village, ghosts and goblins, Korean War and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are mixed. Just as Korean shamanism which stands between superstition, primitive religion, and even Christianity, not only their stories but also the faith and movements of Yeong-Ran Suh keep wandering.



Choreography: Yeong-Ran Suh
Cast: Yeong-Ran Suh
Interviewees: Auntie in Samchunpo, Shingil 3-dong Village Gut(Dodangje) Community/ Gongdeokgol Village Gut Hyundai Real Estate / Dangsan-dong Shrine(Bugundang) Preservation Society
Video Direction: NaYun Heo
Assistant Director: Seungchan Woo
Cinematography: Jiwon Youn, NaYun Heo
Editing & Subtitles: Jiwon Youn, Seungchan Woo
Photo © the artist

4.1 [일] 3pm / 4.2 [월] 7pm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3시간 30분, 인터미션 포함]

“음... 그러니까... 그게 말야, 그런 거 있잖아, 뭔지 알지?”

두 시간 동안이 넘게 이어지는 이 기이할 정도로 예사로운 뮤지컬 대하소설은 지겹도록 평범하고 질리도록 일상적인 이야기들의 평평한 파노라마다. 파볼 리스카(Pavol Liska)와 켈리 카퍼(Kelly Copper)가 이끄는 뉴욕의 퍼포먼스 그룹 네이처 시어터 오브 오클라호마는 의문스럽도록 건조한 제스처를 통해 무미하고 무의미한 인생사에서 뭉툭한 통찰의 단서들을 끌어낸다.

그들의 야심이 담긴 프로젝트 ‘삶과 시절’의 재료는 단원들이 녹음한 친구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이다. 이번에 한국에 소개되는 ‘에피소드 1’은 출생부터 8살까지의 여러 사람의 기억을 담았다. 한시도 내려놓지 않았던 싸구려 장난감, 더 좋은 집에 살던 옆집 친구, 이상하게 조용했던 아버지, 신발을 절대 신지 않았던 여동생 등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 봤음직한, 때로는 그 단조로움이 들고 있는 사람까지도 한심하게 만드는, 그러나 은근히 중독성을 띄는 사소한 잡설이 반복적인 음악과 울동을 따라 풀려 나온다.

밋밋하기 그지없는 말, 말들은 쓰레기와 캠프, 습득물과 무작위, 뮤지컬과 부조리, 그리고 ‘가난한 연극’의 소박함과 우스터 그룹의 완벽성에 이르는 미국 아방가르드의 유산들에 새로운 생기를 부여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떠난 실없는 여정에 맹물에 취하듯 지루해하는 동안 어느덧 우리는 이름없는 삶의 표면의 깊은 곳에 내려와 있다. 그것은 곧 미국의,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참을 수 없이 진부한 존재감의 풍경이기도 하다.

4.1 [Sun] 3pm / 4.2 [Mon] 7pm

Sogang Univ. Mary Hall, Great Theatre

[3hr 30min, with intermission]

This 3-hour musical epic almost bizarre in its banality is a flat panorama of boringly common and tediously ordinary stories. Led by Pavol Liska and Kelly Copper, New York-based performance group Nature Theater of Oklahoma brings out some nonchalant clues of insight from the humdrum and meaningless life stories through their ambiguously dry gestures. While we are getting bored of this listless journey ‘in search of lost time’ as if we’re drunk on plain water, we are unknowingly taken deep down the surface of a nameless life.

Conceived and Directed by: Pavol Liska and Kelly Copper
 From a telephone conversation with: Kristin Worrall
 Original Music by: Robert M. Johanson
 Design by: Peter Nigrini
 Featuring: Ilan Bachrach, Gabel Eiben, Anne Gridley, Matthew Korahais, Julie Lamendola, and Alison Weisgall
 Musicians: Daniel Gower, Robert M. Johanson, and Kristin Worrall
 Prompter: Elisabeth Conner
 Dramaturg: Florian Malzacher
 Production manager: Dany Naerman
 Co-commission, co-producers, supporters, etc.: A production of Nature Theater of Oklahoma and Burgtheater Wien in coproduction with Internationales Sommerfestival Hamburg, Kaaitheater Brussel, Théâtre de la Ville Paris, Internationale Keuze Festival Rotterdamse Schouwburg, and the Wexner Center for the Arts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With support from: The MAP Fund, a program of Creative Capital, supported by the Rockefeller Foundation
 Translation: Kathy Kyunghoo Lee
 Photo © Reinhard Werner Burgtheater



이태리의 정원

4.3 [화] 8pm / 4.4 [수] 7p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70분]

맑은 하늘에 새가 울면
 사랑의 노래 부르면서
 산 넘고 물을 건너 남 오길 기다리는
 이태리 정원 어서 와 주셔요
 저녁 종소리 들려오면
 세레나델 부르면서
 사랑을 속삭이러 남 오길 기다리는
 이태리 정원 어서 와 주셔요

[콜롬비아 레코드 조선지사 1936년]

아마도 기록용 필름, 몇 장의 사진, 짧은 설명, 편지들, 스케치, 무대 장치, 그리고 의상 정도가 있겠지요. 이것들이 우리가 모으고 보관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에게 따라서 많은 양의 자료가 남아 있기도 하고 아주 조금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마리 비그만은 자신이 받은 모든 편지들을 없애버렸어요. 73년에 베를린에서 사망했지요. 반면에 비그만의 제자였던 팔루카는 모든 것을 다 간직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타티아나 그소브스키는 일부를 선택해서 없앴습니다. 발레스카 게르트 같은 경우는 남은 게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남은 것은 그를 기억하기에 충분합니다.

[Akademie der kunste archiv, 2012년]

A Garden in Ita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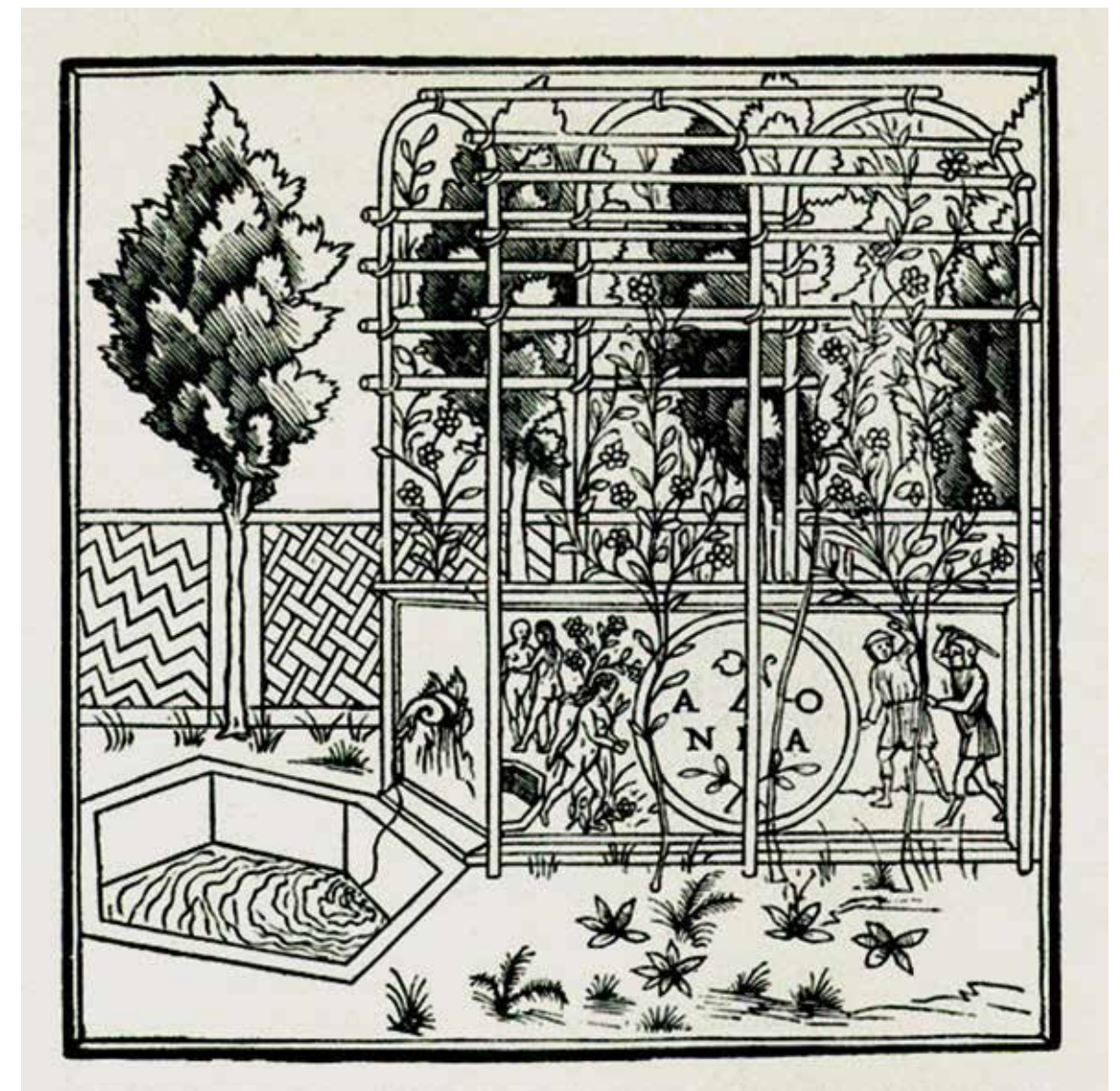
4.3 [Tue] 8pm / 4.4 [Wed] 7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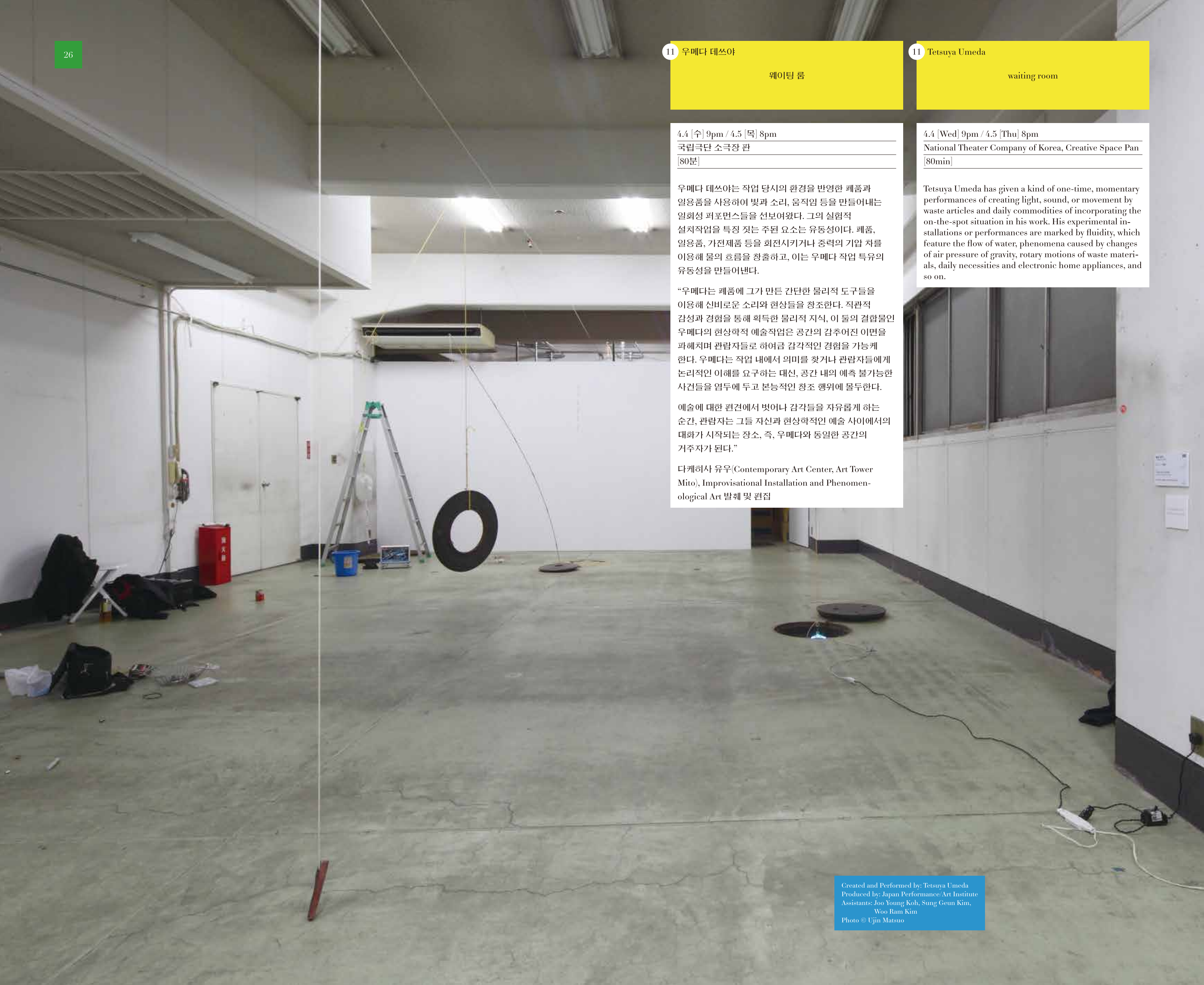
[70min]

There will be probably archive films, some photographs, short descriptions, letter, sketches, set pieces, and costumes. These are what we collect and keep. It depends on the person if there are a pile of materials or very little. Mary Wigman got rid of all the letters she received. She died in Berlin in 1973. One of her pupils Gret Palucca, on the other hand, kept everything. She has a huge archive of herself. For unknown reasons, Tatiana Gsovsky removed things selectively. And there is not much that Valeska Gert left; but it is enough to remember her.

[Akademie der kunste archiv, 2012]



Directed by: Hwayeon Nam
 Dramaturgy: Haeju Kim
 Sound: Younggyu Jang
 Performers: Song Myoung Gyu, Lee Jeun,
 Lee Bai Kyung
 Assistant of Director: Moreau Jung-in Woo
 Support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Photo © Hypnerotomachia Poliphili, *The
 Strife of Love in a Dream*



11 우메다 데쓰야
웨이팅 룸

11 Tetsuya Umeda
waiting room

4.4 [수] 9pm / 4.5 [목] 8pm
국립극단 소극장 관
[80분]

4.4 [Wed] 9pm / 4.5 [Thu] 8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Creative Space Pan
[80min]

우메다 데쓰야는 작업 당시의 환경을 반영한 폐품과 일용품 사용하여 빛과 소리, 움직임 등을 만들어내는 일회성 퍼포먼스들을 선보여왔다. 그의 실험적 설치작업을 특징 짓는 주된 요소는 유동성이다. 폐품, 일용품, 가전제품 등을 회전시키거나 중력의 기압 차를 이용해 물의 흐름을 창출하고, 이는 우메다 작업 특유의 유동성을 만들어낸다.

Tetsuya Umeda has given a kind of one-time, momentary performances of creating light, sound, or movement by waste articles and daily commodities of incorporating the on-the-spot situation in his work. His experimental installations or performances are marked by fluidity, which feature the flow of water, phenomena caused by changes of air pressure of gravity, rotary motions of waste materials, daily necessities and electronic home appliances, and so on.

“우메다는 폐품에 그가 만든 간단한 물리적 도구들을 이용해 신비로운 소리와 현상들을 창조한다. 직관적 감성과 경험을 통해 획득한 물리적 지식, 이 둘의 결합물인 우메다의 현상학적 예술작업은 공간의 감추어진 이면을 파헤치며 관람자들로 하여금 감각적인 경험을 가능케 한다. 우메다는 작업 내에서 의미를 찾거나 관람자들에게 논리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대신, 공간 내의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본능적인 창조 행위에 몰두한다.



예술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감각들을 자유롭게 하는 순간, 관람자는 그들 자신과 현상학적인 예술 사이에서의 대화가 시작되는 장소, 즉, 우메다와 동일한 공간의 거주자가 된다.”

다케히사 유우(Contemporary Art Center, Art Tower Mito), Improvisational Installation and Phenomenological Art 발췌 및 편집



12 김지선

웹-스틸링

4.6 [금] 8pm / 4.7 [토] 8pm
 광화문 시청 일대

‘봄 페스티벌’의 기획은 ‘페스티벌 봄’에 편승한다. ‘봄 페스티벌’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일과 누구나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한다. 교란의 행위들은 시스템에 가하는 일종의 ‘꺾기도(모든 상황을 뜬금없이 꺾어 상대방을 공황상태로 만드는 무술)’이다.

혁명과 인권은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 위에서 사유되고(‘사이트 1’, 후렌치 레볼루션), 온화한 폭동은 스타벅스를 채운다(‘사이트 3’, 스타♥벅스). 지하철에선 멕시코 원주민의 수제 아이도저(사이버마약) 등이 판매되고(‘사이트 5’, 쇼핑몰), 팝업스토어는 일반 상점에 기생 영업하며 훔치기를 중용한다(‘사이트 6’, 팝업스토어).

bomfestival.org

12 Ji-Sun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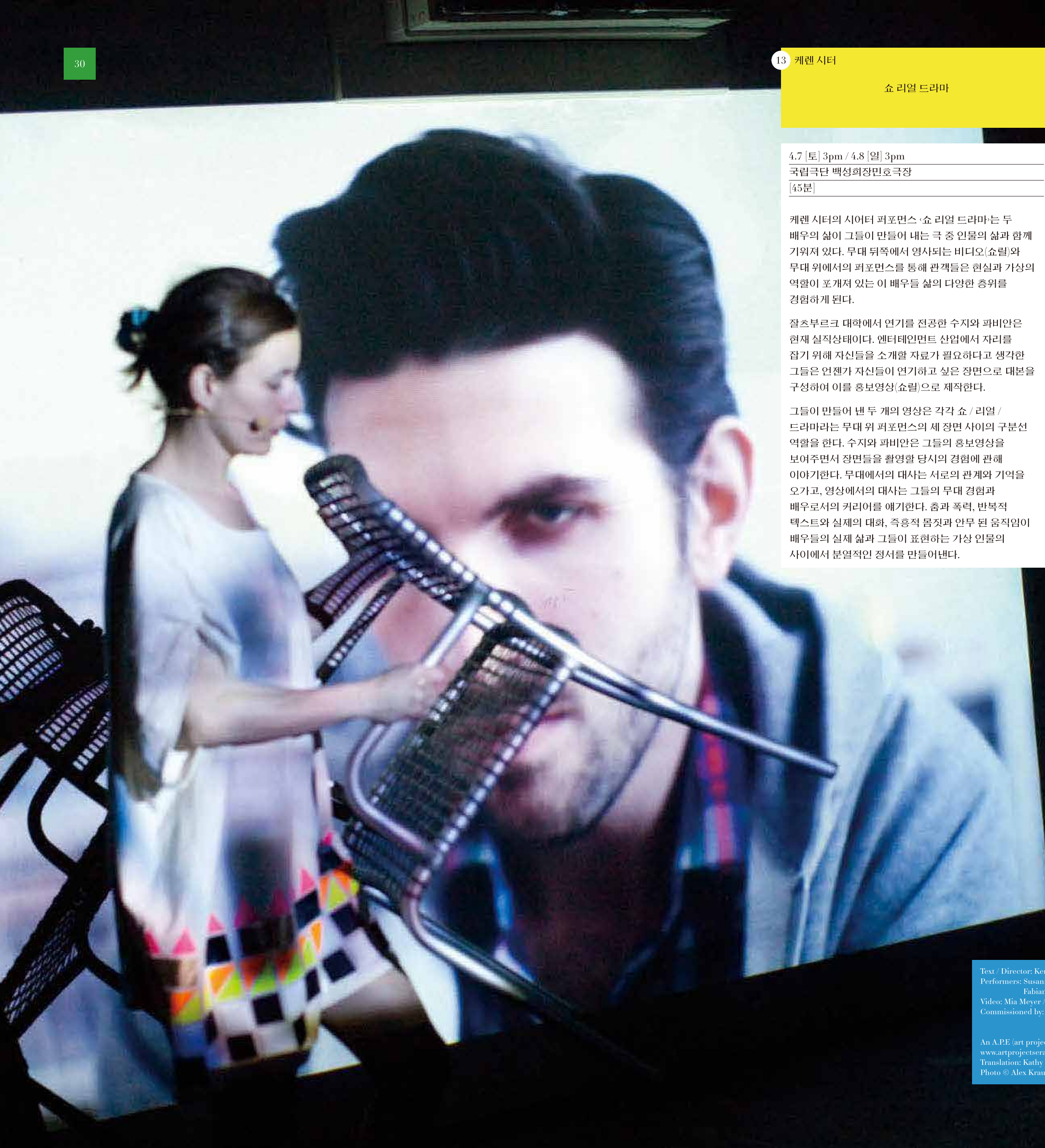
Well-stealing

4.6 [Fri] 8pm / 4.7 [Sat] 8pm
 Gwanghwamun & City Hall area

The coordination of ‘Bo:m Festival’ takes advantage of ‘Festival Bo:m’. ‘Bo:m Festival’ discovers what anybody can do but cannot, and what nobody can do but anybody can. The disturbing actions are a type of ‘breaking technique (martial art that abruptly ‘breaks’ every situation to put people in panic)’.

Revolution and human rights are contemplated on a roller coaster in the amusement park (‘Site 1’, French Revolution) and Starbucks is filled with mild riot (‘Site 3’, Star♥Bugs). Hand-made I-Dosers (cyber drugs) by native Mexicans are sold in the subway (‘Site 5’, Shopping Mall) and a pop-up store is parasitic on a normal shop and coaxes people to steal(‘Site 6’, The Pop-up Store).

bomfestival.org



13 케렌 시터
쇼 리얼 드라마

4.7 [토] 3pm / 4.8 [일] 3p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45분]

케렌 시터의 시어터 퍼포먼스 '쇼 리얼 드라마'는 두 배우의 삶이 그들이 만들어 내는 극 중 인물의 삶과 함께 기워져 있다. 무대 뒤쪽에서 영사되는 비디오(쇼릴)와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들은 현실과 가상의 역할이 포개져 있는 이 배우들 삶의 다양한 층위를 경험하게 된다.

잘츠부르크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수지와 파비안은 현재 실직상태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자신들을 소개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이 연기하고 싶은 장면으로 대본을 구성하여 이를 홍보영상(쇼릴)으로 제작한다.

그들이 만들어 낸 두 개의 영상은 각각 쇼 / 리얼 / 드라마라는 무대 위 퍼포먼스의 세 장면 사이의 구분선 역할을 한다. 수지와 파비안은 그들의 홍보영상을 보여주면서 장면들을 촬영할 당시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한다. 무대에서의 대사는 서로의 관계와 기억을 오가고, 영상에서의 대사는 그들의 무대 경험과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얘기한다. 춤과 폭력, 반복적 텍스트와 실제의 대화, 즉흥적 몸짓과 안무 된 움직임이 배우들의 실제 삶과 그들이 표현하는 가상 인물의 사이에서 분열적인 정서를 만들어낸다.

13 Keren Cytter
Show Real Drama

4.7 [Sat] 3pm / 4.8 [Sun] 3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45min]

Show Real Drama, theatre performance by Keren Cytter, is a patchwork of the lives of two actors with those of the characters created by them. Through the video in the background and performance on stage, the audience experiences various layers of the actors' lives where reality and fictional roles overlap. Dance and violence, repetitive text and real conversations, improvised gestures and choreographed movements create fractured emotions between the actors' real lives and the fictional characters they embody.

Text / Director: Keren Cytter
Performers: Susanne Meyer and Fabian Stumm
Video: Mia Meyer / Keren Cytter
Commissioned by: Deutsche Bank, Globe art, music and performance series, Frankfurt
An A.P.E (art projects era) production
www.artprojectsera.com
Translation: Kathy Kyunghoo Lee
Photo © Alex Kraus

텍스트 테스트—4개의 비디오

4.7 [토] 7pm / 4.8 [일] 7p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50분]

이미 세 권의 소설을 발표하기도 한 작가(writer/artist) 케렌 시터의 작업 기반은 텍스트이다. 분절된 구절들로 가득한 그녀의 글쓰기는 문장의 의미들을 파악해가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독자의 관습적 독서를 방해한다. 그녀의 비디오 작품들 역시 의식의 흐름에 따른다.

영화, 소설, 드라마 등 대중문화에서 가져온 익숙한 소재와 장르의 법칙은 뭔가 한눈에 익은 듯한 느낌을 주지만 다음 순간 그 이미지와 대사(자막)의 빈번한 단절과 반복이 관습적인 감상을 방해한다.

비디오 아트 매뉴얼 (Video Art Manual)
이 작품은 배우, 세팅, 그리고 카메라 사이의 전형적인 관계를 해체하는 그녀의 영상 제작 방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약 15분가량은 비디오 아트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매체 발전에 대한 역사적 분석 대신 현대 비디오 아트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거울 (Der Spiegel)
허름한 베를린의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이 극의 모티프는 단순하다. 40대의 나이 든 여성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더 이상 16세가 아니라며 좌절한다. 그녀는 사랑하는 상대에게는 채이고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이다. 여섯 명의 배우들이 번갈아가며 대사를 말하는 방식은 다소 낯설다. 큰 목소리로 지문을 낭독하거나 카메라를 향해 감정이 섞여야 할 말을 무미건조하게 던진다. 전문 배우들과 작가가 함께 등장하는 이 작품은 일상적 공간에 그리스 비극의 요소가 해체적으로 결합된 작품이다.

사계 (Four Seasons)
‘사계’는 부조리 연극, 초현실적 서사구조, 그리고 테너시 윌리엄스의 연극의 핵심인 복잡다단한 관계들이 뒤섞여 있는 멜로드라마이다. 존 카사베츠의 영화 ‘오프닝 나이트’의 구조를 닮은 이 영상은 한 여배우의 삶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배우의 극 중 역할과 배우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탐구이다. 비선형적 서사, 단편적인 쇼트 구성과 그 반복, 핸드-헬드 카메라의 사용 등을 통해 이미지와 사건이 드라마틱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그 해 가장 더운 날 (The Hottest Day of the Year)
다큐멘터리적 구성과 픽션이 결합된 이 작품은 1971년 프랑스에서 출생했다고 상정된 가상의 인물 안느-마리 밥티스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안느-마리는 파리에서 도망쳐 나와 간호사로 일하면서 남아프리카를 여행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두 아프리카 부족, 코이코이(Khoikhoi)족과 샌(San)족이 서로 싸웠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장소를 찾아가는 도중에 그녀는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1950년 생을 마감한다. 영화의 첫 번째 부분은 전형적인 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하고 있으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느닷없이 이스라엘 방위군 사무실에 배치된 한 여성의 드라마로 전환된다.

Testing Texts—Four Videos

4.7 [Sat] 7pm / 4.8 [Sun] 7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50분]

Writer/artist Keren Cytter, who already published 3 novels, bases her work on texts. Her text full of fragmented phrases gets in the way of customary reading which tries to figure out the meanings of sentences. Her video works are no different in following our flow of consciousness.

Common themes and rules of genres taken from popular culture such as film, novels, and soap operas seem somewhat familiar, but the next moment we see the frequent ruptures and repetition of images and lines (subtitles) which hinder customary viewing.

Video Art Manual
2011
Digital Video
Courtesy of the Artist
15min

Der Spiegel
2007
Digital Video
Courtesy of the Artist
10min (x2 looped)

Four Seasons
2009
Digital Video
Courtesy of the Artist
12min

The Hottest Day of the Year
2010
Digital Video
Courtesy of the Artist
13min

Translated by: Y.B
Co-organized with: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Performance Research Lab
Photo © the artist

4.7 [토] 5pm / 4.8 [일] 5pm

국립극단 소극장 관
[50분]

천수마트 2층은 실재한다. 아트선재 맞은편에 위치한 이곳은 소수에게만 노출된 의외의 장소다. 이곳 천수마트 2층에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은 적 없지만 홀로 기거하며, 수십 년간 파편적인 기억과 자신만이 세운 질서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1919년생 화가, 조성린이 있다.

천수마트 2층을 나와본 적이 없는 그의 그림이 드디어 '관람장치'와 '전시해설사' 그리고 '전시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다.

큐레이터 현시원은 그에게 서예를 배웠고 그의 그림을 보며 그의 특별한 사유와 만나 왔다. '길종상가'를 통해 타인에게 필요한 가구와 사물을 제작해 온 박길종은 까만 극장 안에 작가의 그림만을 위한 장치를 세우고, 극장에서는 <천수마트 2층>을 위한 전시해설사가 우리를 그림과 노화가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리하여 그의 그림은 이 날의 장치를 통해 비로소 관람자들의 시선을 획득하게 된다.

노인의 눈에 박힌 청년의 안구, 새해 인사를 올리는 여인의 날 선 입매, 부엉이와 독수리를 동시에 닮은 새들은 예술과 관람의 기존 질서에 편입될 수 없었던 풍경들이다. 그림이 정상적인 시선을 벗어나 존재하고 저만치 다가갈 수 있는 무대에 전시되는 것은 천수마트 2층이니까, 가능하다.

4.7 [Sat] 5pm / 4.8 [Sun] 5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Creative Space Pan
[50min]

The second floor of Cheonsoo Mart is real. Located at the opposite of Art Sonje, it is an unexpected place exposed to only a few. Here at the second floor of Cheonsoo Mart is painter Sunglin Cho, born in 1919, who has been writing calligraphy and painting according to his fragmented memories and self-built order and method for decades. Paintings by a man who has never gotten out of his place are finally shown to us through the 'viewing apparatus', 'docent' and 'exhibition space'.

Curator / Director: Seewon Hyun
Painting: Sunglin Cho
Apparatus design: Kiljong Park
Guide: Ho Kyung Hwang
Graphic design: Donghyeok Shin
Support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Photo © the artist

천수마트
T.733-9163 H.P:019-212-9163

천수마트
T.733-9163 H.P:019-212-9163



16 침↑폼
슈퍼 랫에서 리얼 타임즈까지

16 Chim↑Pom
From Super Rat to Real Times

4.9 [월] 8pm / 4.10 [화] 8pm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4.9 [Mon] 8pm / 4.10 [Tue] 8pm
Sogang Univ. Mary Hall, Small Theatre

침↑폼은 사람들이 애써 숨기고 잊고자 하는 것들을 공론화하면서도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음을 주장한다. 진실여부는 증명할 수 없지만 침↑폼은 아마도 한스 하케, 안토니 문타다스, 크리지스토프 우디츠코, 아이 웨이웨이의 동일선상에 있는 반체제적 예술가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체제란 결국 무채색으로 '존재하는 것'을 감추고 잊어버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텅 비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으나, 침↑폼이 서 있는 곳은 은폐와 망각의 반대 지점이다.

Chim↑Pom aims to 'bring hidden/forgotten things out into the open'. But they stress that they pursue no specific political intention. While it is of course unverifiable whether or not this is true, they can perhaps be labeled as anti-establishment artists comparable to the likes of Hans Haacke, Antoni Muntadas, Krzysztof Wodiczko, or Ai Weiwei. The establishment, after all, is a machinery that aims to make us 'empty' by covering up 'things that are there' with neutral colors, and promoting the techniques of oblivion. Chim↑Pom doesn't exactly scream out loud, but they do stand up against concealment and forgetting.

『슈퍼 랫』에서 시부야의 검은 쥐를 피카추로 탈바꿈시켜 화려한 도시 이면의 혼돈과 오염을 형상화하는가 하면, 히로시마 상공에 원폭을 상기시키는 '번쩍'이라는 글자를 수놓아 현대일본의 평화중독에 경고장을 던졌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다룬 『리얼 타임즈』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일본의 아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펼쳐놓는다. 침↑폼은 직면한 현실을 부정하는 망각과 위선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Ozaki Tetsuya (general producer, performing arts section of Aichi Triennale 2013), taken and edited from Out of Tokyo, 228: Quakes and Arts III (Realtokyo)

오자키 테쓰야(general producer, performing arts section of Aichi Triennale 2013), Out of Tokyo, 228: Quakes and Arts III (Realtokyo) 발췌 및 편집

- 『슈퍼 랫』(Super Rat), 2006, 비디오
- 『리얼 타임즈』(Real Times), 2011, 비디오
- 『기함 100연발』(KI-AI 100), 2011, 비디오
- 『키싱』(Kissing), 2012, 비디오



17 네지 피진
모티베이션 대행

17 Pijin Neji
the acting motivation

4.10 [화] 8pm / 4.11 [수] 8pm
국립극단 소극장 관
[100분]

거품 붐과 이후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말하는 '부토'의 현주소는?

네지 피진은 11년 전 다이라쿠다칸 무용단의 단원으로 부토에 대한 열정의 삶을 살아오다가, 가난한 연극인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4년 전부터 편의점과 역 가판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주 5일 하루 13시간 반을 서서 일하는 '프리터(장기적 혹은 안정적인 풀타임 일을 하지 않고 비정규 직장을 전전하는 사람)'에게 현실은 예술보다 무겁다. 그가 펼치는 '다큐멘터리 무용'은 부토와 현실의 먼 간극을 가까스로 횡단한다.

극작가 히라타 오리자, 부토 마스터 히지카타 타츠미, 사회학자 캐머론 린 맥도날드와 카르멘 시리안니 등의 의미심장한 텍스트는 편의점 감시카메라에 찍힌 자신의 신체나 패스트푸드점들이 사용하는 단조로운 속어들에 섞여 모순과 역설로 재배치된다.

일본의 차가운 경제적 현실과 내면의 열정 사이에서 어렵게 찾는 타협점은 일상의 자기민족지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공연 형식으로 승화된다.

페스티벌 도쿄 2011 신진예술가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4.10 [Tue] 8pm / 4.11 [Wed] 8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Creative Space Pan
[100min]

The present time of Butoh, told by the 'Lost Generation' after the Bubble burst?

Leading a life with his passion for Butoh as a member of Ankoku Butoh company Dairakudakan which he joined 11 years ago, Pijin Neji started part-time jobs in a convenience store and a station's kiosk 4 years ago to support himself as a poor theatre artist. To a 'freeter(people drifting from one temporary job to another without permanent or stable full-time employment)' who works 5 days a week, standing up for 13 hours each day, reality is heavier than art. His 'documentary theatre' barely crosses the distant gap between stage production and reality.

Winner of F/T Award, Festival Tokyo 2011 Emerging Artists Program.

Concept, Direction: Pijin Neji
Cast: Kaoru Soya (Bungakuza), Shintaro Wada, Pijin Neji
Stage Plan: Chikage Yuyama
Lighting: Nami Nakayama
Sound Plan: Norimasa Ushikawa
Video: Minoru Ide
Production Manager: Yuko Uematsu
Production: acupank
Translation/Simultaneous Interpretation: Joo Young Koh
Photo © the artist



18 홍성민
더 무비

18 Sungmin Hong
The Movie

4.11 [수] 8pm / 4.12 [목] 8pm
국립극단 백성회장만호극장
[70분]

장르간의 만남을 내세우는 공연은 실패한다고 주장해온 홍성민의 영화와 연극의 만남. 영화와 연극, 유사하나 유사하지 않은 별개의 문법을 이미지와 실제, 평면과 공간, 스토리텔링과 몸을 재배치 하기 위해 영화에 상응하는 배우들의 더빙이 동원된다.

홍성민은 ‘Juliette’, ‘엑스트라스’ 등의 작품을 통하여 대학로 연극의 유형학을 제시한 ‘아카이브 연극’을 선보여 왔다. 기존 작품들이 기존 대학로 연극의 작품들을 가져와서 재배치하고 콜라지 한 것이었다면, ‘The Movie’는 기존 영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무대 위 배우들의 연기와 병치된다.

자유연상기법으로 조직된 20여개의 영화의 스토리텔링은 배우들의 더빙에 의해 파편적, 비선형적으로 이어지는데, 여러 레퍼런스들은 신화적 사유와 현대를 넘나들며 영화와 연극이 동시에 진행된다.

4.11 [Wed] 8pm / 4.12 [Thu] 8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70min]

Combination of theatre and film by Sungmin Hong, who has claimed that a performance is to be a failure if it asserts the mixture of genres. The two genres have seemingly similar but different languages. Image and reality, surface and space, storytelling and body are rearranged, also accompanied by the performers' dub, as film's counterpart.

Concept Director: Sungmin Hong
Script: Sungmin Hong, Taekyung Seo
Cast: Acting experts in Daehak-ro
Support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Photo © the artist

19 쉬쉬팝 유서

4.13 [금] 8pm / 4.14 [토] 3pm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110분]

쉬쉬팝이 주도해온 연극의 형식적 과격은 연출 방법론 으로부터 온다. 인터뷰와 상담, 책상회의와 캠프파이어, 소개팅과 역할놀이 등 연출가, 배우, 잠재적 관객 등이 함께하는 놀이는 쉬쉬팝의 극작 과정이다.

리어 왕의 각색을 위해 고민하는 쉬쉬팝 네 명의 단원에게 고전의 생명은 묵은 텍스트가 아닌 자신들의 현재 속에 있다. 늙음으로 인한 끝없는 나약함, 존엄에 대한 갈망, 가족 내의 갈등, 이것은 곧 그들 아버지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무대에 등장하는 실제 '아버지'들은 연극의 안전막도 제거된 상태에서 자신의 깊은 나약함을 직시한다. 잔인할 정도로 솔직할 수 있는 용기로써.

“항상 널 사랑할 거야.”
고전적 주제에 대한 자식들의 '해석'과 '연출'로 인해, 무대와 삶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투명하게 비춘다. 훈련된 전문성을 대체하는 어색함과 머뭇거림은 삶에 대한 작은 감상적 태도조차 허용치 않는 완고함과 어우러져 냉철하고도 진정성 넘치는 '다큐멘터리 연극'으로 완성된다.
한스-티에스 레만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극단 쉬쉬팝의 최근 화제작.

19 She She Pop Testament

4.13 [Fri] 8pm / 4.14 [Sat] 3pm
Sogang Univ. Mary Hall, Great Theatre [110min]

To the 4 members of She She Pop who are concerned with adapting *King Lear*, the essence of classics is not in the outdated text but in their present. Endless fragility due to age, desire for dignity, inter-family conflicts; these are actually the stories of their fathers. The real 'fathers' appearing on stage confront their deeply rooted weakness, even without a protective shield of theatre. With their courage to be so honest which almost cruel. A recent hit by She She Pop, theatre company highly praised in *Postdramatic Theatre* by Hans-Thies Lehmann.

Concept: She She Pop
With Sebastian and Joachim Bark, Fanni and Peter Halmburger, Lisa Lucassen, Mieke und Manfred Matzke, Ilia und Theo Papatheodorou, Berit Stumpf
Stage: SSP und Sandra Fox
Costumes: Lea Sosso
Music: Christopher Uhe
Light: Sven Nichterlein / Michael Lentner
Sound: Florian Fischer
Assistant and Dramaturgical Advice: Kaja Jakstat
Hospital: Laura Lo Zito
Graphic: Tobias Trost
Documentation: Bianca Schemel
Production and PR: ehrliche arbeit.
Administration: Elke Weber
A She She Pop production. In Co-Production with the Hebbel am Ufer Berlin, Kampnagel Hamburg and FFT Düsseldorf. Funded by the City of Berlin, the City of Hamburg and the Fonds Darstellende Künste e.V.
Translation: Kathy Kyunghoo Lee
Photo © the artist

4.14 [토] 5pm / 4.15 [일] 5p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40분]

무대가 요구해 온 표현은 실행자들과 관객 모두에게서 현재와 과정의 인식을 점차 밀어내 왔다. 모두에게서 밀려난 이 인식을 무대 밖, 실행자들의 몸으로부터 발생시킨다. 동시에 무대 위에 이 과정을 출현시킴으로써 극장 전체를 발생시킨다.

현실은 우리 몸에 한계이며 부자유다. 그리고 누구나 그 한계와 부자유 속에서 일종의 괴로움과 불쾌감을 경험한다.

극장과 관객이 요구하는 표현이라는 필요 안에서 댄서, 관객, 극장 모두 그 한계를 짊어진다. 하지만 이런 고난은 대개 몸, 또는 현실의 잘못이 아니라 이를 규정하려는 머리, 즉 생각의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배웠다. 이 가르침에서 개인적으로 “몸은 언제나 쾌적함을 원하기에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몸은 언제나 옳다고.

나는 그 배움대로, 댄서 자신들이 존재해 온 극장에서 표현이라는 목적으로 점철된 무대의 규정되고 계획된 시간을 이어가기보다, 무대 밖에서 오직 자신의 몸으로부터 주어진 지각을 더 적극적으로 들을 것을 요구했다. 이 ‘경청’의 경험이 주는 ‘현재’라는 정보 속에서 일으켜진 일종의 상상을 통해 개방된 실행자들의 몸은 ‘자신만의 극장’을 발생하게 하고 이를 무대 위로 출현시킴으로써 극장 전체로 발생을 이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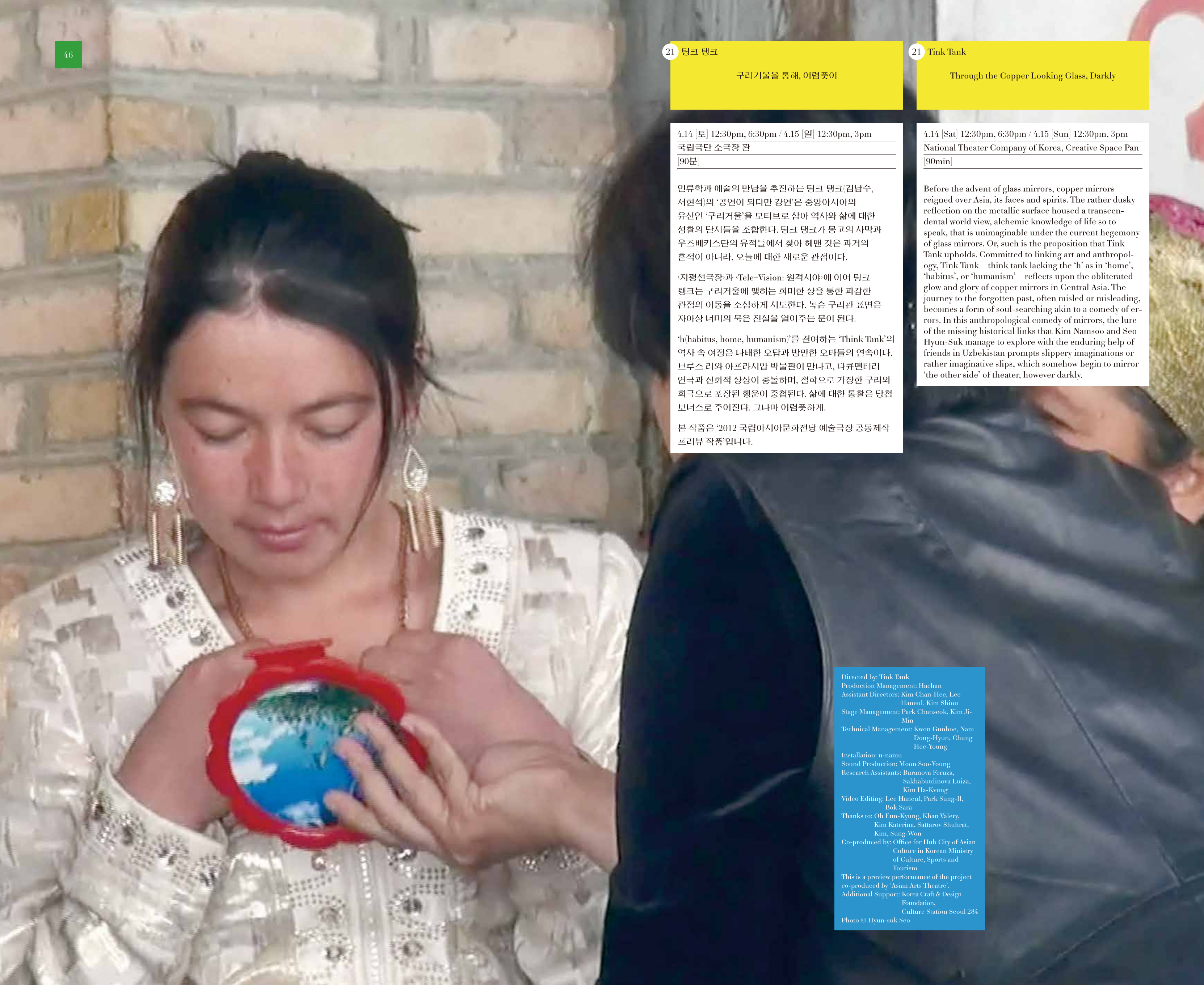
4.14 [Sat] 5pm / 4.15 [Sun] 5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40min]

The expression which the stage requires has gradually prevented both the performers and spectators from being aware of the present and the process. This awareness pushed away from everyone occurs again from the outside of stage, from the performers' body. This process is also brought on stage to achieve the occurrence of a whole theater.

Cast: Eonjin Jeong, u-namoo, Hyun-joon Chang
 Music: Gang il, Yi
 Video: E dong woo, Suck hee woon, Lee hyun jun, Jakofire Alonso
 Direction: Hyun-joon Chang
 Supported b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rts Council Korea
 Additional Support: RINNSOFT
 Photo © 번백선



21 탱크 탱크
구리거울을 통해, 어렵פות이

21 Tink Tank
Through the Copper Looking Glass, Darkly

4.14 [토] 12:30pm, 6:30pm / 4.15 [일] 12:30pm, 3pm
국립극단 소극장 관
[90분]

4.14 [Sat] 12:30pm, 6:30pm / 4.15 [Sun] 12:30pm, 3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Creative Space Pan
[90min]

인류학과 예술의 만남을 추진하는 탱크 탱크(김남수, 서현석)의 '공연이 되다만 강연'은 중앙아시아의 유산인 '구리거울'을 모티브로 삼아 역사와 삶에 대한 성찰의 단서들을 조합한다. 탱크 탱크가 몽고의 사막과 우즈베키스탄의 유적들에서 찾아 헤맨 것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Before the advent of glass mirrors, copper mirrors reigned over Asia, its faces and spirits. The rather dusky reflection on the metallic surface housed a transcendental world view, alchemic knowledge of life so to speak, that is unimaginable under the current hegemony of glass mirrors. Or, such is the proposition that Tink Tank upholds. Committed to linking art and anthropology, Tink Tank—think tank lacking the 'h' as in 'home', 'habitus', or 'humanism'—reflects upon the obliterated glow and glory of copper mirrors in Central Asia. The journey to the forgotten past, often misled or misleading, becomes a form of soul-searching akin to a comedy of errors. In this anthropological comedy of mirrors, the lure of the missing historical links that Kim Namsu and Seo Hyun-Suk manage to explore with the enduring help of friends in Uzbekistan prompts slippery imaginations or rather imaginative slips, which somehow begin to mirror 'the other side' of theater, however darkly.

『지평선극장』과 『Tele-Vision: 원격시아』에 이어 탱크 탱크는 구리거울에 맺히는 희미한 상을 통한 과감한 관점의 이동을 소심하게 시도한다. 녹슨 구리관 표면은 자아상 너머의 묵은 진실을 열어주는 문이 된다.

'h(habitus, home, humanism)'를 결여하는 'Think Tank'의 역사 속 여정은 나태한 오답과 방만한 오타들의 연속이다. 브루스 리와 아프리카시립 박물관이 만나고, 다큐멘터리 연극과 신화적 상상이 충돌하며, 철학으로 가장한 구리와 희극으로 포장된 행운이 중첩된다. 삶에 대한 통찰은 당첨 보너스로 주어진다. 그나마 어렵פות하게.

본 작품은 '20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공동제작 프리뷰 작품'입니다.

Directed by: Tink Tank
Production Management: Hachan
Assistant Directors: Kim Chan-Hee, Lee Haneul, Kim Shinu
Stage Management: Park Chanseok, Kim Ji-Min
Technical Management: Kwon Gunhoe, Nam Dong-Hyun, Chung Hee-Young
Installation: u-namu
Sound Production: Moon Soo-Young
Research Assistants: Buranova Feruza, Sakhabutdinova Luiza, Kim Ha-Kyung
Video Editing: Lee Haneul, Park Sung-Il, Bok Sara
Thanks to: Oh Eun-Kyung, Khan Valery, Kim Katerina, Sattarov Shuhrat, Kim, Sung-Won
Co-produced by: Office for Hub City of Asian Culture in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is is a preview performance of the project co-produced by 'Asian Arts Theatre'.
Additional Support: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Culture Station Seoul 284
Photo © Hyun-suk Seo

22 오마르 아부 사다
카메라를 봐 주시겠습니까?

4.17 [화] 8pm / 4.18 [수] 8pm
두산아트센터 Space111 [90분]

이 작품은 “시리아의 역사적 변화의 순간, 혁명의 순간을 살고 있는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다.

객관적 사실만을 담은 기록이 동시에 진정한 연극, 진정한 영화가 될 수 있는가?

최근 시리아에서 벌어진 시위 중 불법구류를 당했던 젊은이들의 실제 증언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록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카메라를 봐 주시겠습니까?'의 실제 연출가와 작가, 그리고 작품의 허구적 주인공은 복잡한 질문에 직면한다.

주인공 노라는 아마추어 영화감독으로, 불법구류 됐던 시리아인들의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 작품을 만들고 있다.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류 당했던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그 자체로 드라마 가득한 역사이다. 그러나 그것을 담아내는 허구의 이야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반영하고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작품의 연출가인 오마르 아부 사다(Omar Abu Saada)와 작가 모하마드 알 아타르(Mohammad Al Attar)를 거쳐 간 물음이기도 하다. 지극히 명쾌해 보였던 그들의 미션이 혼란스러워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각각의 예술가들이 시리아의 정치적 투쟁에 기여할 수 있는 고유한 방식에 대한 예술적 탐색이다.

22 Omar Abu Saada
Can you please look at the camera?

4.17 [Tue] 8pm / 4.18 [Wed] 8pm
Doosan Art Center, Space111 [90min]

This piece is 'looking at the moment of Syria's historical change and the generation who is living the moment of revolution'.

Is the documentation solely of objective facts at the same time a real theatre, a real film?

While collecting the testimonies of recent illegal detention experiences in Syria into a 'meaningful and valuable' documentation as well as art, the director and writer of 'Can you please look at the camera?' as well as the fictional protagonist of this piece confront many entangled questions.

Organized by: Festival Bom,
Doosan Art Center
Produced by: Doosan Art Center
Playwright: Mohammad Al Attar
Director: Omar Abu Saada
Cast: Nanda Mohammad, Jamal Choucker,
Ayham Agha, Luna Aboderhamen
Translation and Advising on Arab Culture:
Mi Ran Koo
Stage Designer: Bissane Al Charif
Lighting Designer: Hasan Al balkhi
Video: Reem Alghazi
Music: Khaled Omran
Assistant Director: Wirad Kaddo
Production Management: Asia Now

본 공연은 4월 19일(목)부터 29일(일)까지
두산아트센터 '경계인시리즈'로
연장 공연됩니다.

This performance is continued from
Apr 19 [Thu] to 29 [Sun] as Marginal People
Series of Doosan Art Center.

Photo©Bissane Al Charif

파비안 힌리히스 연기 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대니얼 리너헨

3.21 [수] 11am-1pm / 3.23 [금] 12pm-2pm
국립극단

3.28 [수] 9pm 공연 이후
국립극단 소극장 관

(재)국립극단 아카데미, 페스티벌 봄 공동 주최

영상 인터뷰
포스트드라마 연극:
한스-티에스 레만 & 르네 폴레슈

작가와의 대화
이영준,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뮤즈S

3.23 [금] 8pm 르네 폴레슈 공연 이후
대학교예술극장 대극장

3.29 [목] 8pm 공연 이후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페스티벌 봄 공동 주최

신화와 상상에 대한 트위터질
by Tink Tank

작가와의 대화
케렌 시터

4.12 [목] 4pm
www.twitter.com/TinkTank2012

4.7 [토] 7pm 상영 이후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라운드 테이블
텐넨 세대

작가와의 대화
쉬쉬팝

4.10 [화] 8pm 침↑폼 상영 이후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4.14 [토] 3pm 공연 이후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토크
혁명의 시대,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4.18 [수] 8pm 오마르 아부 사다 공연 이후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아트센터, 페스티벌 봄 공동 주최

Fabian Hinrichs' Acting Workshop

Artist Talk
Daniel Linehan

3.21 [Wed] 11am-1pm / 3.23 [Fri] 12pm-2pm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3.28 [Wed] after 9pm performanc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Creative Space Pan

Co-organized by Academy,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and Festival Bo:m

Video Interview
Postdramatic Theatre
Hans-Thies Lehmann & René Pollesch

Artist Talk
Young-June Lee, Nayoungim & Gregory Maass, MuseS

3.23 [Fri] after 8pm performance (René Pollesch)
Daehangno Arts Theater, Main Hall

3.29 [Thu] after 8pm performanc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Co-organiz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atre Critics and Festival Bo:m

Tweeting about Myth and Imagination
by Tink Tank

Artist Talk
Keren Cytter

4.12 [Thu] 4pm
www.twitter.com/TinkTank2012

4.7 [Sat] after 7pm screening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Round Table
Tennen Generation

Artist Talk
She She Pop

4.10 [Tue] after 8pm screening (Chim ↑ Pom)
Sogang Univ. Mary Hall, Small Theatre

4.14 [Sat] after 3pm performance
Sogang Univ. Mary Hall, Great Theatre

Talk
What is Art in the Time of Revolution?

4.18 [Wed] after 8pm performance (Omar Abu Saada)
Doosan Art Center, Space111

Co-organized by Doosan Art Center and Festival Bo:m

페스티벌 봄 2012
 국제다원예술축제
 2012년 3월 22일~4월 18일

주최: 페스티벌 봄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협찬: 커피빈 코리아
 BMW

협력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경기문화재단
 (재)국립극단
 독일문화원
 Goethe Institut
 독일외무부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한이스라엘대사관
 Institut Français
 주한프랑스문화원

페스티벌 봄
 디렉터: 김성희
 사무국장: 성용희
 프로그래밍 어시스턴트: 장연우
 프로덕션: 이경후
 코디네이터: 신진영, 정소리
 홍보 마케팅 팀장: 성민경
 커뮤니케이션: 이지현
 티켓: 배성림
 기술감독: 김지명
 무대감독: 송희정, 조은진, 김태진
 무대제작: 김동경 (타프 무대미술)
 조명감독: 이유진
 조명: 이영욱, 류한경
 음향감독: 오영훈
 음향: 장태순, 엄준석, 정세름
 영상감독: 우기하
 영상장비: visualkei 최석주, 이정길
 디자인: 슬기와 민
 진행스텝: 권건희, 김민지, 김신우, 남동현, 박한상, 강한나
 서버지원: (주)컬처닷컴

Festival Bom 2012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Art Festival
 22 March - 18 April 2012

Organized by Festival Bom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ponsored by Coffee Bean Korea
 BMW

Cooperated with Office for Hub City of Asian Culture,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Goethe Institut
 The Federal Foreign Office of Germany
 Doosan Art Center
 Seoul Art Space Mullae
 The Japan Foundation, Seoul
 Embassy of Israel
 Institut Français
 Institut Français de Corée du Sud

Festival Bom
 Director: Kim, Seong Hee
 Director Assistant: Sung, Yonghee
 Programming Assistant: Chang, Yeonwoo
 Production: Lee, Kathy Kyunghoo
 Coordinator: Shin, Jinyoung / Jungkim, So Ree
 PR/Marketing Manager: Sung, Min Kyung
 Communication: Lee, Ji Heon
 Tickets: Bae, Sung Lim
 Technical Director: Kim, Jimmy (Jimmyung)
 Stage Manager: Song, Hijung / Jo, Eunjin / Kim, Taejin
 Set & Stage: Kim, Dong-Kyung (TAF Scenograph Studio)
 Lighting Supervisor: Lee, Eujin
 Lighting: Lee, Youngwook / Ryu, Hankyung
 Sound Supervisor: Oh, Younghoon
 Sound: Jang, Taesoon / Uhm, Joonseok / Jung, Serome
 Video Supervisor: Woo, Kiha
 Video Technician: visualkei / Choi, Sukjoo / Lee, Jungkil
 Design: Sulki and Min
 Operating Staff: Kwon, Gun-hoe / Kim, Min Ji /
 Kim, Shinu / Nam, Dong Hyun /
 Pak, Hansang / Kang, Hanna
 Server: Culture and Partners Inc.



R 40,000 / S 30,000 [KRW]

1 르네 폴레슈 [René Pollesch]
 7 제롬 벨 [Jérôme Bel]
 9 네이처 시어터 오브 오클라호마
 [Nature Theater of Oklahoma]
 19 쉬쉬팝 [She She Pop]

30,000

4 대니얼 리너헨 [Daniel Linehan]
 11 우메다 데쓰야 [Tetsuya Umeda]
 13 케렌 시터 (공연) [Keren Cytter (performance)]
 17 네지 피진 [Pijin Neji]
 22 오마르 아부 사다 [Omar Abu Saada]

20,000

5 이영준,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뮤즈S [Young-June Lee, Nayoungim & Gregory Maass, MuseS]
 8 서영란 [Yeong-Ran Suh]
 10 남화연 [Hwayeon Nam]
 15 현시원 [Seewon Hyun]
 18 홍성민 [Sungmin Hong]
 20 장현준 [Hyun-joon Chang]
 21 텅크 탱크 [Tink Tank]

10,000

2 박찬경 [Park Chan-kyong]

8,000

3 제커리 오버젠 [Zachary Oberzan]
 16 침↑폼 [Chim↑Pom]

Free

6 마리아노 펜소티 [Mariano Pensotti]
 12 김지선 [Ji-Sun Kim]
 14 케렌 시터 (상영) [Keren Cytter (screening)]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aik-Chang Theater

13 케렌 시터(공연) [Keren Cytter(performance)]
 5 이영준,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뮤즈S
 [Young-June Lee, Nayoungim & Gregory Maass, MuseS]
 10 남화연 [Hwayeon Nam]
 18 홍성민 [Sungmin Hong]
 20 장현준 [Hyun-joon Chang]
 2 박찬경 [Park Chan-kyong]
 3 제커리 오버젠 [Zachary Oberzan]
 14 케렌 시터 (상영) [Keren Cytter(screening)]

국립극단 소극장 관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Creative Space Pan

4 대니얼 리너헨 [Daniel Linehan]
 11 우메다 데쓰야 [Tetsuya Umeda]
 17 네지 피진 [Pijin Neji]
 8 서영란 [Yeong-Ran Suh]
 15 현시원 [Seewon Hyun]
 21 텅크 탱크 [Tink Tank]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Sogang Univ. Mary Hall, Great Theatre

9 네이처 시어터 오브 오클라호마
 [Nature Theater of Oklahoma]
 19 쉬쉬팝 [She She Pop]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Sogang Univ. Mary Hall, Small Theatre

16 침↑폼 [Chim↑Pom]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Arko Arts Theater, Main Hall

7 제롬 벨 [Jérôme Bel]

대학교예술극장 대극장
 Daehangno Arts Theater, Main Hall

1 르네 폴레슈 [René Pollesch]

두산아트센터 Space111
 Doosan Art Center, Space111

22 오마르 아부 사다 [Omar Abu Saada]

장소특정 공연
 Site-specific

6 마리아노 펜소티 [Mariano Pensotti]
 12 김지선 [Ji-Sun Kim]

패키지티켓
 6개 이상 공연 예매시 50% 할인 [www.festivalbom.org]

얼리티켓
 3월 6일 자정까지 30% [www.1300k.com]

단체할인
 10명 이상 동일공연 관람시 30% 할인

Package Tickets
 50% off for 6 or more programs [www.festivalbom.org]

Early Birds
 30% off by midnight 6 March [www.1300k.com]

Group Discount
 30% for 10 or more people

The new
BMW 3 Series

www.bmw.co.kr/
3series



경기를 만든자가 그것을 지배한다.

세계 최초 스포츠 세단, 37년 6세대를 거쳐 진화한 BMW 뉴 3시리즈가 완벽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풀컬러 HUD, 이피션트다이내믹스 기술로 설계된 트윈파워 터보엔진과 ECO PRO모드가 적용된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컨트롤, 8단 자동변속기와 오토 스타트/스톱 버튼까지 가장 완벽한 형태로 진화한 BMW 뉴 3시리즈, 승리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JOY WINS. THE NEW BMW 3 SERIES.

승리의 도시로 초대하는 BMW 골드 패키지 프로그램

대상: BMW 뉴 3시리즈 3월-5월 구매등록고객 중 총 10분 (추첨을 통하여 6월 중 개별 공지)

내용: 런던 왕복 항공권, 최고급 호텔 숙박권 및 라운지 이용권, 스포츠 경기 4회 관람권, BMW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 제공 등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BMW EfficientDynamics

320d 22.1km/l 184hp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 (080) 269-2200 BMW 공식 홈페이지 www.bmw.co.kr BMW 페이스북 www.facebook.com/BMWKorea
BMW 공식 딜러 전시장 서울 (강남) 546-7301 (강북) 987-0123 (대치) 554-7601 (동대문) 2235-7301 (목동) 2649-7301 (방배) 3477-0123 (삼성) 568-7301 (서초) 595-0123 (송파) 416-7301 (양재) 545-7301 (용산) 3275-0123 (분당) 781-0123 (분당) 716-7401 인천 (간석) 429-7301 (송도) 427-7301 울산 922-7301 수원 223-7301 부산 (남구) 627-7301 (해운대) 731-7301 대구 745-7301 광주 521-7301 창원 247-7301 대전 523-7301 전주 223-7301 원주 742-7301 울산 265-7301 창원 236-7401 전주 748-7301 포항 282-73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The new BMW 3 Series 320d (배기량 1,995cc, 공차중량 1,430kg, 자동 8단) 연비 22.1km/l, CO₂ 121g/km, 1등급 320d EfficientDynamics Edition (배기량 1,995cc, 공차중량 1,425kg, 자동 8단) 연비 23.8km/l, CO₂ 113g/km, 1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 광고 이미지는 실제 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양 및 제한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적용 사항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는 Sport 라인이며 BMW 뉴 3시리즈는 Sport, Modern, Luxury 3가지 라인 및 320d EfficientDynamics Edition 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